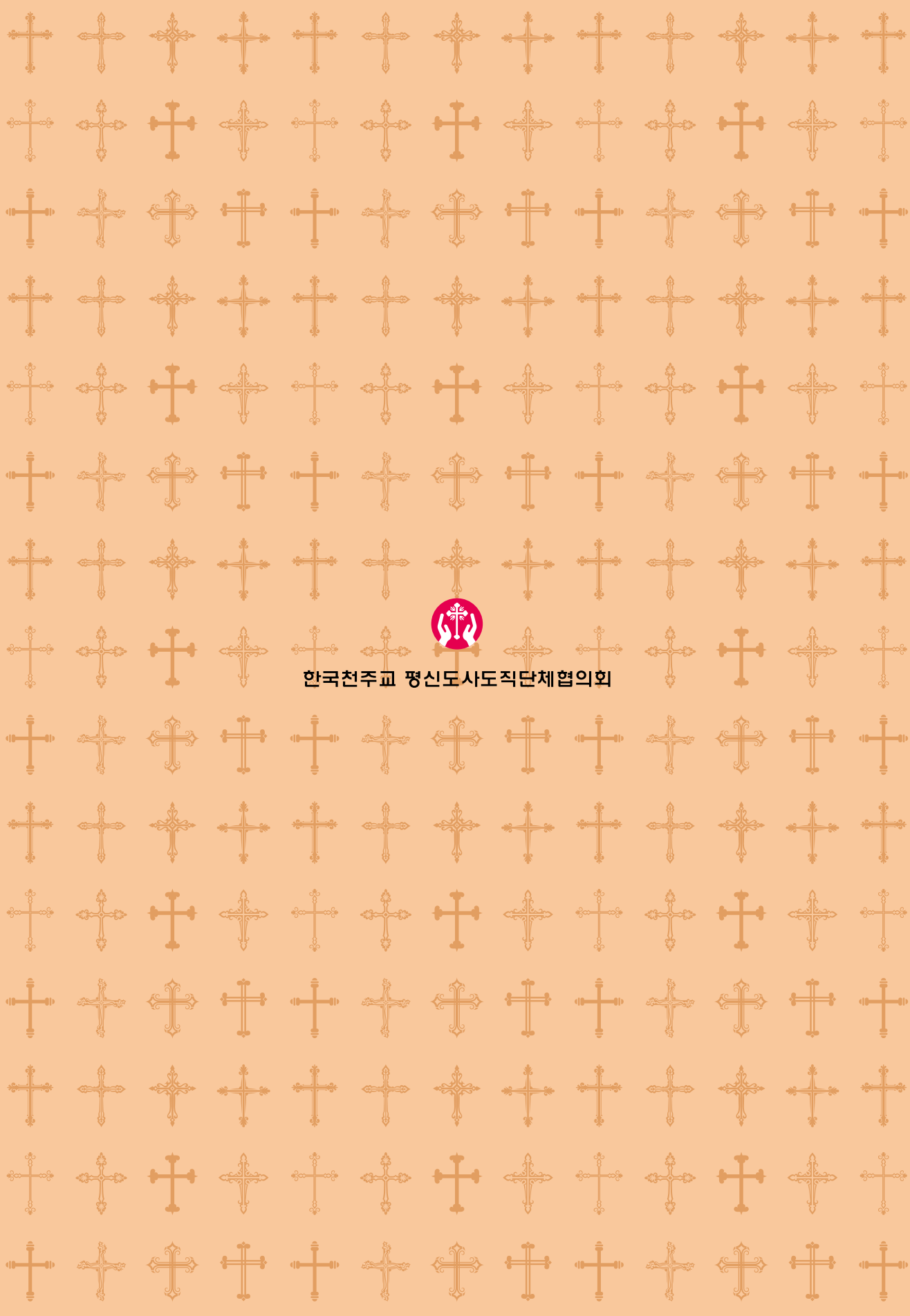




2015년 가을 계간 49호

평신도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2015년 가을
계간 49호

평신도

인사 권길중 한국평협 회장 **만남** 박해룡 대구평협 회장 · 조규만 주교 **이야기** 평협 연수회 이모저모 · 양면성을 지닌 종교의 상품화 **나눔**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 · 복지들의 영성 **배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영성 순례 · 영화 속 '인간과 세상' · 로마서 특강 **소식** 교구평협 · 회원단체 · 평신도 양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평신도

2015년 가을
계간 49호

발행인 권길중 바오로
담당사제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발행처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편집장 김선동 루카
편집위원 권지영 데레사, 김문태 힐라리오,
나권일 토마스, 명백훈 프란치스코,
배봉한 세례자 요한, 서상덕 스테파노,
신동수 세라피나, 오완수 바오로
(가나다 순)
제호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디자인·인쇄 가톨릭출판사



표지 모델

표지 모델인 개포동 본당 정진 가브리엘과 심경희 안나 부부는 2010년에 함께 종신 서약을 한 재속 프란치스코이다. "복음을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를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부부는 어렸을 때 행당동 성당을 함께 다니고, 교리교사와 교리신학원도 함께한 오래된 연인이자 부부 선교사다. 7대째 이어오는 가톨릭 집안 출신인 남편과 모태 신앙의 아내가 두 남매와 함께 사랑의 성가정을 이루었기에 해바라기처럼 얼굴에 웃음이 환하다.

인사

02 회장 인사말 / 권길중

만남

04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 나권일

08 조규만 주교 인터뷰 / 배봉한

12 그리스도 정신을 실천하는 기업을 찾아서 / 권지영

이야기

16 평협 연수회 이모저모 / 나권일

20 교회 톨아보기 / 서상덕

25 공소의 가을 풍경, 고산성당 되재공소 / 박은수 · 김규현

26 평신도 연구/ 변진홍

28 참 그리스도인의 삶 / 김정숙

30 전례봉사자의 자세 / 전종환

32 참 소중한 열정 / 김연희

34 그리스도의 삶 - 십자가의 신비 / 박성임

36 양면성을 지닌 종교의 상품화 / 김민수

39 만화 세상 / 서원만

나눔

40 평신도가 된다 /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

42 복자들의 영성 / 김길수

배움

46 인문학 강좌 / 김문태

49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영성 순례 / 황인수

56 영화 속 '인간과 세상' / 이대현

60 성화에 얹힌 이야기 / 고종희

63 로마서 특강 / 임숙희

66 아가다의 음악편지 / 양인웅

소식

68 평신도 양서 / 신동수

70 교구평협 · 회원단체

회장 인사말

어머니답게 살겠습니다.

권길중 바오로 한국·서울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고생하며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마태 11.28~30)



아들 형제를 두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친구의 권유로 하루 피정에 참여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사랑이신 하느님’이었습니다. 이제까지 하느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분께 기도하며 들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다고 생각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날 모임을 주관하시는 분이 들려주신 주제 ‘사랑이신 하느님’을 듣고 몇 가지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해 주신 ‘나’는 이 세상에 나한 사람밖에 없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내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도 나처럼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그분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분들도 내 사랑을 기다리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깐 열른 생각나는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은 모든 걸 이해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두 아들에게 집중하느라 있어 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연애했 때로 되돌아가서 사랑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피정을 마친 뒤 가득한 기쁨과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왔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사랑만으로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할 것 같은 큰 기대를 안고 온 집입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했을 때는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이 어질러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속에서 울화가 치밀었지만 결심한 것을 이렇게 쉽게 무너뜨릴 수 없어서 “배고프지?” 하고 웃으면서 말을 건넵니다. 간식을 먹고 난 뒤는 배가 부르다며 소파에 누워 버립니다. 화가 치밀고 잔소리를 퍼붓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받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억지로 참습니다. 이 기운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모임에서 들었던 다른 분의 경험담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자식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대상이 아니라, 또 다른 예수님으로 존중해 주고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 주어 일치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편한 속은 아니었지만 잔소리를 빼고 계속 사랑만 했습니다.

사흘째 된 날입니다. 아들이 “엄마, 내 엄마 맞아요?”라고 물었습니다. 말없이 아들을 품에 안

아줍니다. 언제 안아주었는지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오랜만의 포옹입니다. 포옹에서 벗어난 아들이 자기 결심을 말합니다.

“엄마, 저를 믿어 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학원에 가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열심히 공부할게요. 집에서 공부해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어요.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기특한 말을 한 뒤에도 엄마가 보기에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성적과 그 결과가 만들어 낼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도 여전했고, 잔소리로 혼수를 두고 싶은 마음도 불같이 일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성체 안에서 늘 침묵 중에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저도 아들을 믿고 그를 존중해 주며 어머니답게 살기 위해서는 제가 저야 할 이 짐과 멍에를 기쁘게 저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새로운 사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물론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는 좋은 포장으로 잔소리하고 성질을 부리는 것이 훨씬 쉬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아들에게 하느님을 대신해야 할 저, 엄마는 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제 안에 가득한 욕망과 다른 분의 아들과 비교하고 싶은 욕망을 비워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느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워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은 읽으면서 이 어머니 아들의 대학 입시결과가 궁금해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아들은 비록 짧은 시간의 노력이었고, 사교육비도 들이지 않고 공부했지만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대학에 합격합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사랑한 것에 대해 하느님께서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학습이론에서도 이런 방법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공부는 공부하

는 사람이 필요성을 느껴 흥미롭게 진행할 때 효과가 있다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와 아들 사이만이 아니라, 온 가족 간에 새로운 사랑이 가득하게 되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을 버림받은 분들을 먼저 찾아 나섭시다. 쉬고 계신 형제들,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분들, 병들어 고통스러운 분들, 북한의 형제들까지 찾아 사랑합시다.

저희 평협에서 전개하고 있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은 이렇게 나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본당과 직장에서 이기주의로 식어가고 있는 공동체를 재건하려는 운동입니다.

나부터 시작합시다. 내가 참으로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 하느님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교회공동체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형제자매님들을 그분들의 입장에서 사랑합시다. 내 직장을 예수님의 빛으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합시다. 특히 나를 기다리고 있을 버림받은 분들을 먼저 찾아 나섭시다. 쉬고 계신 형제들,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분들, 병들어 고통스러운 분들, 북한의 형제들까지 찾아 사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어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주님의 멍에와 짐을 같이 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박해룡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스스로를 낮추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대담 · 정리
나권일 편집위원

지난 7월 10일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연수회가 열린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에서 만난 박해룡 대구평협 회장은 연수회 내내 따뜻한 미소와 소탈한 품모, 품격 있는 언행으로 기품을 잃지 않았다. 1박2일의 짧은 만남 동안 ‘평협 회장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신 박 회장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는 경일대학교에서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에 대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구의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교구 평협의 역사를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구의 평협은 1967년 6월 25일 14개 단체로 조직된 ‘대구교구 가톨릭 액션 협의회’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조직된 평신도 사도직 기구입니다. 이후 1975년에 확정된 교구기구통일안에 따라 우리 교구도 ‘평신도사도직협의회’로 재출범하였고, 1982년에는 본당의 평협 대표까지 참여하는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로 개편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교구의 평신도 단체는 두 차례에 걸친 교구 시노드 및 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님의 사목방침에 따라 2013년 말부터 ‘평신도위원회’와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구 평신도를 대표하는 평신도위원회는 교구 총회장과 5개 대리구의 총회장, 여성위원회 위원장 및 평단협 회장과 여성부회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위원 한 분 한 분은 교구장의 사목 의향이 모든 본당과 제 단체에 더 잘 전달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본당 총회장과 의 원활한 소통으로 교구 차원의 각종 행사에 많은 평신도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단협은 교구 행사를 주관하는 한편 교구장 인준을 받은



81개의 소속단체(신심단체, 직능·직장단체, 동교회 단체)들이 각기 고유한 목적과 방법에 따라 각기 талан트를 최대한 활용하여 새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며, 한국평협 및 타교구 평(단)협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대구 평협은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요?

우리 교구 평단협이 진행하는 행사는 매년 정례화되어 있는 행사와 특별 행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행사로는 교구장기 테니스 대회와 실버세대를 위한 교구장기 게이트볼 대회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40년의 역사를 가진 교구장기 테니스 대회는 본당뿐만 아니라 교구 내 기관과 신부님들의 참여가 매우 높아 매년 그 열기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 성료된 제4회 교구장기

게이트볼 대회는 준비부터 진행 일체를 게이트볼 선교동호회에서 맡아 하실 정도로 짧은 시간에 그 체계가 정비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구는 도보성지순례를 매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전날에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에는 한티순교성지에서 도보성지순례를 마친 후 미사 중에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선포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별행사로는 작년에 개최하였던 시북경축문화예술제를 들 수 있습니다. 124위 순교자들의 시복을 경축하는 의미와 함께 교황님의 방한과 시복식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를 실천하기 위해 ‘순교정신 이어받아 새복음화에 매진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최한 예술제였죠. 새로 제작한 대구 지역의 순교복자 20위의 영정 진본을 최초로 공개했고, 미술인회·문인회·전례꽃꽂이회·



지난해 대구대교구 평협이 주최한 시복경축문화예술제.

사진가회의 작품 전시뿐만 아니라 시복경축 대음악회와 소음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미술실기대회, 백일장, 핸드폰 카메라촬영대회를 부속 행사로 개최했고, 전시회와 음악회에 참가한 모든 회원들의 작품과 출연진을 담은 도록을 발간하여 풍성하고 다채로운 한마당이 되었다고 자평합니다.

○ 대구 평협은 하반기에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선포식을 통하여 교구민 전체가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에 동참하도록 하는 일이 하반기 대구 평협의 큰 사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서울대교구나 광주대교구에서는 지난 4월과 5월에 먼저 선포식을 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교구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실천하기 위한 방안들을 성공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에서도 교구민 전체가 선포식에 동참하고, 이후 다같이 ‘답게 살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왔고, 이제 9월에 그 결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먼저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의 교구 선포식은 9월 19일 토요일에 교구도보성지순례 후 미사 중에 교구민들의 마음을 모아 교구장님께 선언문과

실천사항 등을 보고하고 이를 주님께 봉헌하는 것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본당 선포식은 그다음 날 교중미사 중에 총회장이 주임신부님께 보고한 선언문을 봉헌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교구는 조환길 교구장님을 필두로 평단협 담당사제이신 박영일 교구 사목국장께서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하시어 꼭 필요한 지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평신도뿐만 아니라 성직자들도 이러한 운동에 기꺼이 동참하시기로 뜻을 모아서 가까운 시일 안에 교구사제 선포식을 거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회장으로 일하시면서 겪은 어려움들은 없으셨는지요? 또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평단협 회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고 나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한 것이 생각나네요. 하나는 새롭게 출범한 교구 평신도위원회와의 관계 정립 혹은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사실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이는 기우에 불과한 것이었지만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평협 행사는 물론이고 <대구평신도>의 발간 준비 등에 이르기까지 넉넉한 인품과 확고한 신앙심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교구 총회장을 중심으로 본당과 평단협

제 단체가 하나 되는 모습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적인 잣대로 예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필요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고민은 회장 임명장 수여 후 첫 인사 때 고백한 저의 ‘편식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의 반찬 편식부터 시작하여 중·고등학교 6년, 대학과 대학원 11년, 그리고 28년간 봉직하고 있는 현 직장에 이르기까지, 일단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동일한 공간에서 끝장을 보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에서도 영세 직후 참가한 꾸르실로에서 주간으로 봉사할 때까지 한 우물만 파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편식증을 가진 제가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소명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각자 고유한 카리스마를 가진 제 단체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해 이를 공언한 바 있습니다. 물론 시간적 제약과 그 외의 사소한 일들로 기대만큼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지만, 꾸준한 대화와 만남으로 일부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계기를 부여한 것, 그리고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활동하던 분들을 공동체로 끌어들이는 동기를 부여한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회장을 맡으신 뒤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해 오신 것은 무엇인지요?

평단협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거둔 결실 중 하나는 새롭게 출범한 교구 평신도위원회와 평단협이 서로 공조하고 일치하는 모습으로 평신도 사도직 활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기 중 시복경축예술제를 비롯한 정례화된 교구 행사 등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 단체의 고유하고 무한한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스스로를 낮추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야고

4,10)’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실천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구는 제가 4년 전 꾸르실로 주간을 맡을 당시 꾸르실로 한국협의회 홍보부장과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택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동안 외적 활동에 치우치다보니 내적 활동을 소홀히 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적 삶과 기도의 힘을 되풀이하여 강조한 아내에게 “마리아에게는 마르타가 필요하고, 마르타 덕에 마리아도 찬양받는 것”이라는 변명으로 넘겨왔으나, 이제부터는 내적 삶에 좀 더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 이론에 밝은 학자이신 회장님께서 신앙을 갖게 된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저에게 주님을 알게 해준 이는 지금까지 늘 고마운 마음으로 신앙동반자의 길을 걷고 있는 제 아내 권 아녜스입니다. 결혼 직전 영세를 한 아내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저는 물론 시부모님과 평화의 평화를 위해 한동안 드러나지 않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시부모님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하신 부모님께서 스스로 교리반에 등록하시어 세례를 받으셨고, 두 아이의 유아세례에 이어 저도 영세(1996년)를 통해 자연스럽게 성가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예언직과 봉사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도 가정의 평화와 가족의 응원, 그리고 어머니와 아내의 기도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주님의 은총을 체험한 것은 영세 후 1년 만에 참가한 꾸르실로입니다. 신앙적으로나 교리 등 모든 면에서 거의 백지상태에서 참가하였기에 어쩌면 관전자로 보낸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평협 회장을 맡은 지난 2년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늘 제 곁에 함께하시면서 저의 부족함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분들을 보내주셨고, 또한 예정하신 대로 이끌어주셨습니다. 



조규만 주교 인터뷰

당신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대담 · 정리
배봉한 편집위원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61세)를 9월 3일 서울대교구청에서 만났다. 조 주교는 1982년 8월 26일 사제로 수품, 2006년 1월 25일 주교품을 받고, 서울대교구 보좌주교로 서서울지역과 동서울지역 교구장 대리로 사목했으며 2014년 2월부터 총대리를 맡고 있다.



저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사무처장 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있다가 2006년 1월 주교가 되었어요. 주교회의에서 3월까지 남은 임기를 마치고 교구청으로 들어가지 않고 서서울지역 및 청소년 담당 교구장대리를 맡아 목5동 지역에서 2014년 1월까지 8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서서울 지역 본당들을 두 번 정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 보니 신자는 많은데 미사 참여율이 3분의 1이 안 되어 처음엔 실망스러웠습니다. 대한민국 550만 천주교 신자 가운데 150만 명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거품이 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개미」라는 책을 보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집단인 개미도 3분의 1이 농땡이래요. 3분의 1은 제 판에는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망쳐 놓고요. 나머지 3분의 1이 망쳐 놓은 것을 보수하고 일하면서 개미 사회를 건설한다는 데, 이게 하느님께서 정해 주신 황금비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미들이 100퍼센트 다 열심히 일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개미들이 인간을 장악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550만 천주교 신자들이 다 주일미사에 열심히 참여하고 다달이 한 번씩 고해성사를 보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당이 터져 나가고 신부들이 과로사를 하겠지요. (웃음)

본당 신자 가운데 3분의 1이라도 열심히 하면 그 본당 공동체가 열성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열성적인 본당은 주일미사 참석자가 35%에 육박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본당들은 3분의 1도 안 되는 25% 정도예요. 저는 신자들에게 3분의 1만 열심히 하면 본당 공동체가 움직인다고 이야기했어요.

또 하나 신자 비율이 서울은 15%이고 전국이 10.5%인데, 서울대교구 안에도 잘사는 지역은 신자 비율이 20%가 넘고 30%가 되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지역은 신자 비율이 낮아요. 지난해 초에 중서울지역 교구장대리를 맡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자 비율이 10%가 안 되는 거예요. 경제 사정도 안 좋고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 적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성당에 가는 게 어려운 이유가 무얼까요? 중산층이 많은 지역일수록 천주교 신자 비율이 높고 가난한 지역일수록 비율이 낮은 이유는 무얼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성당에 가는 게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내야 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를 외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내야 해요.

지난해 2월 총대리를 맡아 교구청에 들어와 살면서 제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았어요. 서서울지역에서 사목방문을 하면서 느낀 것부터 정리해 보았어요. 서서울지역은 본당이 70개 있지만 경제적인 상황이나 신자들의 규모나 다 같은 본당들이 아니었어요. 신자수가 1,000명이 안 되는 본당이 있는가 하면 1만 2,000명이 넘는 본당도 있었어요.

본당을 분가하려면 모본당이 땅값이나 건축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모든 본당이 일종의 십일조를 내자고 하고 각 본당에서 주일헌금과 교무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모아 보았어요. 1,000만 원을 3년 동안 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본당이 있는가 하면, 2억~3억 원을 내고도 아무렇지도 않을 본당도 있을 만큼 편차가 컸어요.

본당에서 교구에 내는 납부금 문제도 그래요. 교구 납부금을 다 내면 본당 살림을 하기가 어렵다는 신부님들이 있어요. 교구 납부금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책정하는 게 하나의 숙제고요. 본당 분할도 다시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본당 구역 경계선에 재개발 지역이 생기면서 본당 신부님들이 서로 그 구역을 자기 구역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웃음)

또 한 가지는 소공동체 운동입니다. 잘 되는 본당은 잘 되는데 대부분은 잘 안 되고 있죠. 특히 남성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잘 되는 본당은 왜 잘 되고 안 되는 본당은 왜 안 될까요? 이제 소공동체 운동도 20년이 지났으니 새롭게 평가해 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그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불쌍하고
어려워서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사제나
수도자들이
보이지 않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꼭
사람들이 보는
정치판에 끼어
이용되고,
그저는 아니라고
봐요.

신심단체도 그래요. 레지오 마리애가 1950년대에 들어와 선교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냉담교우 권면하고 병자 방문하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즘은 잘 안 되고 있지요. 이번에 서울대교구에서는 레지오를 전담하는 신부를 새로 임명했어요. 레지오를 활성화하고 옛날의 그 모습을 다시 한 번 찾자는 거지요.

꾸르실료와 매리지 엔카운터(ME)도 더 활성화하려고 중견 전담신부를 임명했어요. 지난해에 저도 ME를 체험하고 가정을 중요성을 느꼈는데요.

지난번 사도좌 정기방문 때 교황님께 한 주제를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시노드를 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지금은 가정이 위기라 한 번 모여서 몇 주 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살려면 가정을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교구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답게 살자’는 캠페인을 하던데, 내년 2월 2일까지가 봉헌생활의 해죠. 수도자들이 수도자답게 사는 게 뭘까요? 수도자는 기도를 통해서 한 인간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당에 나와 사목자로서 여성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생활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게 수도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당 신부님들마다 수녀님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신부님들을 만나면 이렇게 살아야 하고 또 저런 신부님들을 만나면 저렇게 살아야 하니까 수녀님들이 헛갈리지요.

시골 본당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수도자들이 어머니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대교구 같은 경우는 본당 안에 많은 여성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전문직도 많아서, 수녀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본당이 많아요. 수도자가 본당에 있어 도움이



되기도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날 수도자 성소가 급격히 줄어드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해요. 앞으로 얼마나 갈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보다 이미 앞서간 유럽 교회의 상황이 우리한테도 닥쳐올 것이 틀림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거냐는 거죠.

사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제답게 사는 게 뭘까요? 김수환 추기경님이 생전에, 나는 참 행복하게 살았는데 젊은 신부님들을 보면 안됐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당신은 사제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사제로서 존경해 주고, 주교가 되었을 때도 당신 말을 듣고 존경해 주었는데, 앞으로 젊은 신부님들이 신자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30여 년 전 제가 신부가 되었을 때는 로만칼라를 하고 지하철을 타면 신자들이 인사를 했어요. 동창 신부님 본당에 가면 그 구역 내에서 신자

들이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 본당 신부님이 아니면 로만칼라를 한 신부를 봐도 인사를 안 해요. 그만큼 상황이 바뀌었어요. 본당 신부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인터넷에 올리고 데모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옛날 신부님들이 누렸던 그런 생활을 이제는 꿈꿀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사제답게 사는 게 무언지 고민하게 도와주거든요.

교황님 말씀대로 사회운동을 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불쌍하고 어려워서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사제나 수도자들이 보이지 않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꼭 사람들이 보는 정치판에 끼어 이용되고,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전임 교황님과 현 교황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교회는 점차 세속화의 경향을 띠고,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하느님께 무얼 청해야 하나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의 하느님의 계획은 도저히 알 수 없지만, 한국 교회의 큰 변수는 북한 문제 같아요. 북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북한 교회도 큰 변수가 될 거예요. 통일을 얼마만큼 충분히 준비하느냐, 이게 중요하고 큰 변수라고 봅니다.

저는 ‘잊혀진 질문’이라는 차동엽 신부님의 책을 보면서, 삼성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의 스물네 가지 질문, 여기에 제가 나름대로 답변서를 마련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죽기 전에 제가 꼭 하고 싶은 제 버킷리스트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숙제가 또 하나

있어요. 1990년에 교황청 우르바노 대학교에서 교의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학위논문을 다 마쳤을 때 토마스라는 평신도 지도교수님이, 저보고 기도학교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얼까? 기도학교를 해야겠다! 이게 또 하나의 제 버킷리스트예요.

기도학교를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봤어요. 도심 같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조그만 집 한 채를 마련해서, 경당에 성체를 모시고 누구든지 와서 얼마든지 24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누가 와서 성사 달라면 성사 주고 상담하고 싶어 하면 상담해 주고, 왜냐하면 성당들은 밤이 되면 다 문을 닫으니까요.

또 하나는 야외의 넓은 대지에 경당을 하나 지어서 가르멜이든 어떤 수도회를 초청해 성무일도를 바치게 하고, 누구든지 와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곳곳에 은수처 같은 곳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와서 피정을 할 수 있게 하고, 넓은 공간을 마련해 대성통곡하며 기도를 하든, 누구나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싶어요.

이게 제 버킷리스트 1호이고, 앞서 말한 잊혀진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만드는 게 2호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톨릭교회에 질문하고 싶어 하는 내용에 답변을 하고 싶고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하느님을 만나는 일이 필요한데, 하느님을 만나자고 해놓고 전부 다 그와 상관없는 일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입니다. 두 가지 숙제를 어떻게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정신을 실천하는 기업을 찾아서

(주)일신밸브

대담 · 정리
권지영 편집위원



이번 가을호에는 작지만 강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일신밸브의 김현조(스테파노) 회장을 인터뷰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한국 가톨릭 성령새신봉사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위해 김 회장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반성하게 되는 내용이었는데요. 일흔이 훌쩍 넘은 나이가 무색하게 밝은 에너지와 신앙에 대한 노력과 실천하는 김 회장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신앙에서의 성실함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사업이 기울어 빛에 쫓기면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성당 짓는 일에 앞장섰던 내용인데요. 특히 이번 가을호에는 김 회장이 고마웠지만 그동안 속내를 표현하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함께 담았습니다.

○ 국세청에서 일하면서 공인회계사로도 일했는데, 어떤 계기로 일신밸브를 창업하게 됐나요? 일신밸브는 어떤 회사인가요?

대학 졸업 후 제 첫 직장은 국세청이었습니다. 1967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회계사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투자공사와 증권사로 자리를 옮겨 주로 기업 감사보고서를 검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한 밸브 회사의 경영자로 일하게 됐습니다. 하루 아침에 증권회사 임원에서 밸브 회사에서 월급 받는 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밸브회사의 대표로 일하면서 자기 사업을 꿈꿨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던 해는 1982년. 마침내 저만의 밸브 회사를 세웠고, 지금의 일신밸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일신밸브는 기본적으로 정유, 가스, 원자력 발전소 등에 필요한 산업용 밸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난 1982년 처음으로 문을 열었고, 지금까지 34년이 된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정유회사를 비롯해 세계 굴지 회사에 산업용 밸브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는 밸브를 만들다 보니,

한 번 사고가 생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밸브를 만들 때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일신밸브는 이른바 '강소(強小)'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지만,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사실 회사가 이만큼 성장하기까지 여러 번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하느님께 의탁하지 않았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결정의 기로에 설 때마다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 집안이 천주교가 아니라 부인의 권유로 세례를 받게 됐다고 했는데, 결심한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이 전에는 아내만 천주교 신자였는데, 제가 1980년 방배동성당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34년간 미사에 함께 다니게 됐습니다. 세례를 받게 된 계기는 사실 마음이 아픈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위암으로 절반 이상의 위를 절제해야 하는 투병 과정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매일같이 하느님께 아내를 살려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고통스러운 암 투병을 잘 견뎌냈고, 지금도 제 옆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 성령새신봉사자협의회 회장은 어떻게 맡게 됐나요? 처음 성령을 접했을 때 어떠셨나요?

1985년 성령새신세미나를 처음 받았고, 이 후 한 번 더 받게 됐습니다. 처음 세미나를 받았을 때는 잘 몰라서 두 번 받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 생소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껏 세례를 받고, 성서모임 봉사자로 활동만 했지 '성령'이란 것을 제대로 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은 물론 생소한 것입니다. 철야 기도모임에 참석한 신자들 보면 뭔가에 취해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흥분이 돼 있어요. 그들은 바로 성령에 취해 기분이 좋아져 춤도 추고, 고함도

지르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외람된 표현이지만 우리도 각자 살아온 방식대로 술 마시고, 노래방에 가서 한껏 노래하고 춤추면서 자신의 기분을 표현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새신 기도모임에 참석한 신자들은 성령에 흠뻑 취해 하느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새신은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노력 또는 체험이라고 얘기를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고, 수도자가 수 년간 기도를 통해 비로소 체험할 수 있는 것이네요. 하느님께서 '당신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노력하듯이 신자인 저희들도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 회사 경영하는 과정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시나요?

회사 경영 측면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대외거래 관계에서 어떤 경우라도 '담합'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동종업자들에게 담합을 하자는 제의가 여러 번 왔는데,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이후 업계에서 미움을 받아 소송을 당하는 등 5년 동안 줄기차게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든 담합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총 다섯 번의 소송을 당했고, 다섯 번 모두 이겼습니다. 소송을 당할 때마다 늘 하느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드리는데, 마지막 소송을 이기고 나니, '하느님께서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금도 내게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경쟁 회사들의 견제입니다.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담합하지 않으니 그들 눈 밖에 난 것이죠. 지금은 인내로 버티고 있습니다.

사람을 뽑을 때도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느님께서
'당신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노력하듯이
신자인
저희들도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노력합니다. 단점 대신 장점을 보고, 학벌이나 집안을 고려하지 않고 직능(능력)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여기에 품성까지 갖추면 물론 좋겠지만, 조직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단점이 아니라면 포용하는 편입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는 일용직으로 입사해 과장까지 승진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이 제 인재채용 철학이기도 합니다.

○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싶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꿈꿔온 일이라고 하셨는데, 아동센터 설립도 그런 사업의 일환인가요?**

기업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동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성장해서 이윤을 많이 내면, 그 지역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형편이 어렵고 힘든 사람과 같이 가는 것이 일종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직접 실천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신밸브 본사가 위치한 경기도 시흥에 있는 '일신매화지역아동센터'라는 곳이며, 집안 형편이 어려워 방과 후 과외활동을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마련한 공간입니다. 정부에서 40% 정도 지원받고, 회사에서 나머지 60%를 부담합니다. 연간 유지비용이 1억 원(정부지원 제외)에 이르지만 이런 나눔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사회적 책임을 비로소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 **개인회사를 경영하기도 하지만, 중간에 하느님 사업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본당 총회장을 두 번 하면서 두 개의 성당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 성당은 낙성대(관악구)에 있는 봉천동 성당이고, 두 번째는 인현동 성당입니다. 성당을 지을 때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사업이 어려워져 성당 건립 기금을 내기조차 힘든 경우도 있었고, 성당을 지었을 때 주변 아파트에서 땅 관련 소송을 제기해 공사를 중단한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잘 해결돼서 무사히 건립을 마쳤는데, 당시에는 무척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느님 사업에 적극 참여하다 보니 제 사업이 어려울 때 도와주신 분들도 많습니다. 중간에 사업이 어려웠을 때 방배동 총회장을 만나 사업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고, 이 때문에 재기에 성공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도움을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사업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은 당시 본당(방배동) 신부님이 타신 적금을 원장수녀님을 통해 전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전 개소식.

○ **언제까지 일하실 계획인가요? 혹시 은퇴 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조만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그렇고, 요즘 종종 힘에 부치기도 합니다. 돈 버는 일을 그만두면 제 영적인 사업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여행도 다니고,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 성령쇄신운동이 2017년에 50주년이 되는데,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회장으로 고민 중입니다. 평신도들이 하느님과의 체험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그 작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평협 연수회 이모저모

한국평협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으로 공동체 재건 시동

나권일 편집위원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권길중 · 이하 한국평협)는 지난 7월 10~11일 광주대교구 예수 고난회 명상의 집에서 2015년 전반기 연수회를 갖고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전국의 각 교구와 단체로 확대해 전개하고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평협 2015년 전반기 연수회에서 참가자들이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에 대한 나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각 교구 평협 회장단과 단체장 등 6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연수회에서 개막 미사를 주례한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는 “우리 모두가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성령께 의탁해 ‘답게 살겠습니다’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자.”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이자 한국천

주교주교회의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인 김 대주교는 강론을 통해 “신앙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머리를 지키기 위해 꼬리를 잘리는 것을 감수하는 뱀의 지혜를 닮아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믿음을 지켜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비둘기처럼 양순하게 따라야 한

다.”며 평협 관계자들이 ‘봉사자답게’ 살아줄 것을 당부했다.

답게 살겠습니다 전국 확산 계기돼

이번 연수회는 특히 서울 평협에서 시작된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이 전국의 교구와 단체들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답게 살겠습니다’는 “나 자신부터 쇠신하고 반성하는 일이 우리 가정과 교회,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에서 출발한 생활 속 실천 운동이다.

서울 평협의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본부’ 실행위원인 김문태 교수(서울디지털대학교)는 개막미사 후에 ‘답게 살겠습니다’ 캠페인을 전개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강의에서 “나 자신부터 ‘답게 살겠습니다’는 마음가짐으로 내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족·친지·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푼다면 우리나라가 망국적인 죽음의 문화에서 벗어나 생명의 문화를 창출하여 더불어 사는 세상을 실현할 수 있다.”며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교수의 강의를 끝난 후 참석자들은 조별 토의와 나눔의 시간을 갖고 각자가 ‘답게 사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교구, 단체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참석자들은 신앙인으로서 자신이 얼마나 나답게, 그리고 가정공동체의 가족답게, 하느님의 자녀답게, 사회인답게 살아왔는가를 성찰하면서 자기 자리에서 직분을 지키면서 답게 살기를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와 사례발표가 끝난 뒤에는 한국평협이 선포한 ‘답게 살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대한 교구별, 단체별 발표가 진행돼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전국에 확산시키는 기회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연수회를 주관한 광주평협의 나현식 회장은 준비한 동영상 자료를 통해 직접 사례발표를 진행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광주평협은 이후 5월 16일 광주 쌍촌동 가톨릭 평생교육원에서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선포식

을 거행했는데, 이 자리에는 김희중 대주교와 권길중 한국평협 회장이 참석해 격려했다. 광주평협의 평신도들은 선언문을 채택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고 ▲각자 소명을 직시해 삶의 바탕으로 삼고 ▲우리의 역할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행동하며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공동체의 일원답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광주평협은 특히 홍보에 주력했다. 가톨릭신문과 평화신문에 평협 간부들이 출연해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홍보했고, 6월에는 광주평화방송에 평협 회장과 간부가 직접 출연해 소개했다. 광주평화방송에 1분 45초 분량의 선교캠페인을 녹음해 청취자들에게 ‘답게 살겠습니다’ 캠페인을 적극 홍보했고, 교구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도 내용을 게재했다. 광주평협은 리플렛과 포스터를 만들어 본당과 공소, 수도회에 배포한 데 이어 본당 및 제단체들을 대상으로 8월에 본당 대표교리교사 연수 때 운동 실천 특강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 운동을 홍보하고 실천해 나갈 것임을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광주평협은 10월 3일 주교님과 함께하는 도보성지순례 때 전 신자와 함께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10월 24일 평신도 대회 때 도 운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광주평협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발표가 진행되자 교구별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발표됐다.

대구대교구는 사제들도 선포식 예정

대구평단협 박해룡 회장은 9월 19일 교구 도보성지순례 때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선포식을 진행하고 9월 20일에는 본당별로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선포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구 월간지 <빛> 잡지의 9월호 권두사에 관련 원고를 기고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특히 대구평단협은 교구장님을 필두로 평단협 담당사제인 교구 사목국장인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면서 11월 3일 사제총회 때 사제들이 ‘답게 살겠습니다’ 선포식을 거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참석자들을 고무시

켰다. 조기연 서울평협 수석부회장은 “대구대교구 소속 사제들이 평신도운동에 적극 동참기로 한 것은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전주평협도 ‘답게 살겠습니다’를 교구 상황에 맞춰 ‘낮추어 살기’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밝혀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낮추어 살겠습니다’는 이병호 주교의 사목 방침에 따라 전개되고 있는데, 그리스도 닦기를 실천하기 위해 채우기, 베풀기, 어울려 살기를 개별 본당에서부터 적극 실천하고 있다고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마산교구도 4월에 ‘답게 살겠습니다’ 선언문을 발표한 데 이어 해인사 등 사찰과 원불교, 개신교 등 4대 종단과 함께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적극 벌여 나가고, 11월 평신도주일에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교구는 9월에 갑곶성지에서 개최할 순교자현양대회 때 ‘답게 살겠습니다’ 선포식을 할 계획임을 밝혔고, 평신도주일 강론을 ‘답게 살겠습니다’ 내용으로 하기로 했다. 춘천평협도 10월 9일에, 청주평협은 11월 6일 대림2주차 평협 임원단 회의 때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선포식을 갖겠다고 발표했다. 부산평협 부산지역 내 7대 종단이 동시에 움직이기 힘든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 대대적인 선포식은 하지 않는 대신 생활 속에서 조용히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실천하기로 했다. 수원평협도 10월 1일 평협 세미나를 계기로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가장 먼저 시작한 서울평협은 본당보다는 단체 중심으로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서울평협은 이미 레지오 마리아와 세나투스가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선포식을 가진 데 이어 서울시 소속 신자 공무원, 한국가톨릭학교장회, 여야 국회의원, 한국새천년복음화사도직협의회 등이 선포식을 순차적으로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일에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답게 살겠다’는 다짐을

선언하는 행사가 열렸다. 서울평협은 앞으로 ‘답게 살겠습니다’ 강사요원을 모집해 강사들을 통해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리플렛 제작과 실천사례를 모은 사례집도 발표해 지속적으로 이 운동을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앙인의 정체성 찾고, 공동체 재건 의미

각 교구의 발표에 이어 전국 평신도 단체들도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가톨릭교수협의회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이 우리에게 꿈과 희망, 용기를 주었다”며 관구별 소그룹운동으로 벌여 나가기로 했다. 여성연합회와 꾸르실료도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에 적극 관심을 쏟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평협은 연수회를 계기로 가톨릭 평신도 중심으로 시작한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범종교계로 확대하는 한편, 정치인과 공무원, 언론인, 교육자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전 국민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확산해 나가는 데 매진하기로 했다.

권길중 한국평협 회장은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관련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답게 살겠습니다는 하느님과 나, 이웃과 나, 가족과 나 등 관계 속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운동이자 공동체 정신이 파괴되어 있는 우리 시대에 공동체를 재건하자는 운동”이라며 “각 교구평협(평단협)이 교구 현실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답게 살겠습니다’에 나설 줄 것”을 호소했다. 권 회장은 이를 위해 “각 교구의 활동상황을 평협 홈페이지에 올려 정보를 공유하고 교구별, 단체별 행사 때는 서로 초대하고 나누자.”고 제안해 참석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연수회 참석자들은 1박2일 동안 염수정 추기경이 인준한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위한 기도문을 수시로 바치며 마음에 새기고 실천을 다짐하는 기회로 삼았다. 특히 이번 연수 기간에 행사 준비에 애쓴 광주평협 봉사자들은 ‘봉사자답게’ 겸손한 태도로 정성을 다해 참석자들을 편안하게 했다. 

‘답게 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돼왔나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겪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이후 권길중 한국 평협회장이 공동체 회복을 위한 근본적 방안으로 평신도들이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실천운동의 하나로 한국평협 상임위원회에서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2월 14일 안동교구를 제외한 전국 15개 교구 평협 회장단과 26개 전국 운동단체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5년 첫 정기총회에서 ‘답게 살겠습니다’ 캠페인을 전 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결의했다.

한국평협은 특히 국민의 50%가 넘는 7대 종단 협의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와 손을 잡고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신교·불교·원불교·유교·천도교·천주교·민족종교협의회 등 7개 종단은 2월 25일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답게 살겠습니다’ 선포식을 가졌다. 이어 4월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 주최로 열린 ‘2015 이웃종교화합대회’에서 7대 종단이 함께하는 범국민 실천운동인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중앙본부가 출범했고, 운동을 제안한 권길중 한국평협 회장이 중앙본부 대표회장으로 취임했다. 현재 7대 종단의 경우 각 종교의 상황에 맞게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가톨릭은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으로, 원불교는 ‘네덕 내덕’ 운동으로, 성균관은 ‘국민도덕성 부흥운동’으로, 불교는 ‘부처님 뵈시다’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모두 근본정신은 공동체회복 운동이다.

가톨릭의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은 서울평협이 4월 8일 명동성당 패밀리아채플에서 ‘답게 살겠습니다 - 시작하는 날’ 행사를 열면서 첫 테이프를 끊었다. 서울평협 회원들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주인의식 결여, 불공정한 룰, 금전만능 풍조, 부정부패 등 심각성이 드러났다.”며 “신앙인 특히, 천주교 신자들이 앞장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기성찰과 변화를 통한 실천운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전개했다.

서울평협은 “우리 평신도들이 철저한 자기성찰을 통해 우리 자신부터 쇠신하고자 한다.”며 ▲ 모든 문제의 원인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는다 ▲ 각자 소명을 직시해 삶의 바탕으로 삼는다 ▲ 우리 역할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행동한다 ▲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공동체 일원답게 살아간다는 주요 선언문을 발표했다. 평신도들은 이에 따라 ▲ 자기성찰 ‘나답게 나를 사랑하고 감사하며 사는가’ ▲ 가정공동체 ‘성가정을 본받아 남편과 아내는 신뢰하고 존경하는가’ ▲ 교회공동체 ‘하느님 자녀답게 하느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가’ ▲ 사회공동체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가’ 등 12가지를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마산대교구, 광주대교구 등이 ‘답게 살겠습니다’ 선포식을 가졌고, 이번 7월 10~11일 한국평협 연수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교회 톨아보기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다운 삶 - 김수환 추기경을 통해 본 참 그리스도인상

서상덕 편집위원

취재 현장을 뛰는 가톨릭신문사 서상덕 기자가 여러 차례 고 김수환 추기경님을 취재하면서 느꼈던 소회를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관점에서 정리했다. <편집자 주>



1977. 04. 07. 김수환 추기경 서울 양평동 철거민촌 방문.



1997. 12. 29. 김수환 추기경 행당동 철거민들과 함께.

20년 전 1: 엉뚱한 물음

그를 처음 만난 건 서울대교구청 주교관 3층에 있던 그의 집무실에서였다. 이제 신문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말단 초년병인 데다 처음 대하는 교회 어른이라,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얼굴이 상기되고 열까지 나는 듯하다.

뭐라고 인사를 드렸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이름 석 자는 어떻게 입 밖으로 냈던 모양이다. 그랬더니 그는 대답 “본관이 어디지요?”라고 했다.

‘학... 꼴깍.’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질문 “혹시 우리 어머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 어머니도 ○○ 서씨 이신데...”

그랬다. 그는 긴장으로 온몸이 얼어붙어 있다시피 하던 내게 지엄한 어른이 아니라 자상한 할아버지로 다가왔다. 먼저 웃어 보임으로써 상대의 웃음을 이끌어낼 줄 아는 이였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도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을까.’

어떻게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취재를 마치고 교구장 집무실을 나와 주교관 앞마당에 선 내 가슴 속으로 소름 돋을 듯한 상쾌한 바람이 한바탕 쓸고 지나갔다. 그날 그 시간 이후, 교회와 교회 어른

을 대하기도 전에 피어오르던 막막하고 두려움은 기쁨과 용기로 바뀌어 지금껏 내 걸음을 이끌고 있다.

“그리고 보니, 같은 스테파노네...”

그가 직접 건네준 목주를 꺼내볼 때면 헤아릴 수 없는 감정이 교차한다.

20년 전 2: 거길 가보고 싶는데

1997년 12월 서울 행당동 산기슭. 성탄절이 코앞에 닥친 어느 날 그는 겨울이 깊어 마음마저 시린 행당동 철거 현장을 오르고 있었다. 세찬 겨울바람은 연방 흙먼지를 뿜아올려 회오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밤색 털모자에 검정색 외투로 몸을 가렸지만 매서운 바람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그 며칠 전 나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서울대교구장 비서실에서 온 연락이었다. 성탄을 앞두고 내가 취재해 신문에 낸 특집 기사를 보고 “거길 한 번 가보고 싶는데...”하며 힘겨운 철거민들의 속사정까지 파악해간 터였다.

천막으로 열기설기 지어놓은 철거민들의 살림터 겸 본부는 근 2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찼다. 제대로 씻지도 못해 민망한 마음에 머뭇대던 철거민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잡은 이는 그였다. 그의 첫마디가 걸작(?)이었다.

“미안합니다. 이제 와서...” 특유의 좀 선 듯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내 가슴 한편으로 뜨거운 무엇인가가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갑작스런 사람들의 방문에 놀란 철거민촌 아기의 땀국이 흐르는 볼에 자신의 뺨을 비벼대며 환한 미소를 짓던 그의 모습은 두고두고 지워지지 않는다.

15년 전: 아니, 괜찮아요

그때도 성탄을 앞둔 즈음이었다. 그의 운전기사를 통해 파악한 그날 예정된 일정은 그의 몸 상태로는 적잖은 무리가 따른다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였다. 짐짓 염려가 된 내 눈길은 취재하는 내내 그의 표정에 쏠렸다.

한동안 그를 지켜보던 내 눈에 이상한 점이 들어왔다.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틈틈이 손과 팔을 주무르는 그의 모습이었다. 그를 만난 사람들이 하도 손을 꼭 잡고 흔들어대는 바람에 노구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아픔까지 얻게 됐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

수행하는 이들이 일정을 조정하거나 사람들을 막아설라치면 그는 “아니, 괜찮아요.”라는 말을 연발했다.

“내게는 잠시지만 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발걸음을 재촉하는 그의 모습에, 자신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전장으로 향하는 장수의 모습이 겹쳐 떠올랐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 모든
그의 사랑을
가능하게
만든 힘은
‘가난한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다.

6년 전: 사람이 만든 기적, 사랑이 만든 기적

2009년 2월 16일. 이날을 기억하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을 듯하다.

그날은 기사 마감이 몰리는 월요일이었다. 한바탕 마감 전쟁을 치르고 모처럼 이른 퇴근을 서두르고 있던 찰나 비보가 날아들었다. 오후 6시 12분,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했다는 소식이 모두를 주저앉게 만들었다.

당시 취재팀장으로 취재 일선에 있던 나는 지금도 명동성당을 몇 겹으로 둘러서 있던 추모객들의 행렬이 눈에 선하다. 장례가 치러지던 닷새 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4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명동성당을 찾아 추기경을 추모했다.

가까이는 수원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부터 멀리는 부산과 목포, 제주도는 물론 해외에서도 추기경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보기 위해 명동성당을 찾은 이들이 적지 않았다.

호주에서 왔다는 한 신자의 말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추기경님 같은 분과 같은 시대를 살며…, 그분을 통해 뭔가를 배울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1986. 12. 24. 김수환 추기경 상계동 철거민들과의 성탄미사.

명동에서 만난 이들은 가톨릭 신자뿐만이 아니었다. 불교 스님과 개신교 목사, 원불교 교무 등 종교와 이념을 떠나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추기경을 추모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 가히 ‘김수환 추기경 신드롬’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실제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생전의 약속에 따라 김수환 추기경이 안구를 기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기 기증 서약 바람이 불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교회 안팎에서는 ‘기적’이라는 말이 무성했다. 그날 그 때의 기적은 김수환 추기경으로부터 시작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김수환 추기경이 보여준 사랑, 그리고 그를 향한 많은 이들의 사랑이 만들어낸 합작품이 아니었을까.

길 위의 성인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은 오래도록 많은 생각을 품게 한다.

돌이켜 보면 인간 김수환 곁에는 늘 사람들이 넘쳤고 그만큼 사랑도 넘쳐났다. 그런 그가 주님 품으로 돌아간 지 적잖은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그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어른’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 그의 빈자리는 더 크게 다가온다. 왜 이토록 많은 이들이 그를 추모하고 그리워하는 것일까.

나는 그 해답을 세월과 함께 흐릿해져가는 기억 속에서도 오히려 생생한 화면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 찾아낼 수 있었다.

그야말로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내해내며 묵묵히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가던 ‘거인’의 모습 바로 그것이다. 그의 모습이 거인처럼 도드라질 수 있었던 까닭은 의외로 간단하다. 그가 발걸음 하면서 만난 이들을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생전 그가 성탄절이나 부활절을 앞둔 즈음에 하루



1999. 2. 15. 김수환 추기경 화훼마을 주민 위로.

에도 몇 번이나 장소를 옮겨가며 찾아다닌 이들이 있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이 입양될 때까지 보호하는 성가정입양원이나 사글세방 들어갈 돈조차 없어 번두리로 밀려난 비닐하우스촌 사람들, 먼 타국 땅에 와서 외롭게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

그는 노구를 이끌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가운데서도 더 가난한 이들 곁을 찾아갔던 것이다.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 40) 2000년 전 가장 겸손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작은 이들’의 친구이자 형제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대로 녹아나는 대목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김 추기경은 자신의 부끄러운 속내를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다.

“인생에서 가장 긴 여행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머리에서 마음에 이르는 여행입니다. 머리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마음에까지 닿게 함으로써 마음이 움직이고 몸도 따라야 하는데…, 저도 늘 그게 잘 안 돼요.”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칠십년 걸렸다는 내 마음 속 ‘거인’의 고백은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세상엔 많은 길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그 많은 길을 따라 걸으며 저마다의 발자취를 남기는 여정입니다. 세상으로 난 길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음의 길이 있지요.”

그에게 길은 단지 걸어갈 수 있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이 맺힌 피와 땀으로 다져가야 하는 곳이었다. 마음으로 난 길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일, 그것이 그가 자신이 택한 무수한 길들 위에서 보여준 모습이었던 것이다.

스스로를
'바보'라고
부른 김
추기경은
온 마음을
바쳐 가난한
삶을 살고자
했기에
예수님의
가난에
가까워질 수
있었다.

오늘을 살며: 참 그리스도인

김 추기경이 우리 곁을 떠난 후 많은 이들이 그의 정신을 존경하고 따르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일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적잖이 보아 왔다. 당장 예수님만 봐도 그렇다. 그분을 가까이서 모셨던 토마스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뵈고서야 믿었고, 제자 중 으뜸이라는 베드로 사도는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

입으로는 수없이, 우리 모두를 하느님 나라 잔치에 초대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의 주위에 사표로 삼을 만한 스승이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있다면 얼마나 충실히 그의 길을 좇고 있는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같이, 우리와 동시대를 살았던 인간 김수환도 주님과 한 길을 걸어갔기에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흔들어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놓은 실체는 무엇인가. 그 실존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관통하고 있음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럼 무엇이 인간 김수환을 김수환답게 했는가. 결국 해답은 그가 걸었던 길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가 걸어갔던 길에서 무엇을 찾아낼 수 있을까. 나는 지상에서 잠시나마 함께했던 그의 길을 되짚으며 몇 가지 말을 골라낼 수 있었다.

‘미소’ ‘나눔’ ‘평화’ ‘자애’ ‘연민’...

한 마디로 김 추기경은 지상에서의 삶을 다양한 사랑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다. 그 사랑이 누구에게든 따뜻한 미소로, 누군가에게는 연민으로, 어떤 이에게는 푸근한 나눔으로, 또 다른 이들에게는 평화로움으로 다가갔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 모든 그의 사랑을 가능하게 만든 힘은 ‘가난한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다. 스스로를 ‘바보’라고 부른 김 추기경은 온 마음을 바쳐 가난한 삶을 살고자 했기에 예수님의 가난에 가까워질 수 있었다.

평소 입버릇처럼 가난을 역설해온 그는 특별히 사제들의 가난을 강조했다. 그런 그가 아프게 고백한 말이 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많은 욕심을 버려왔어요. 식욕, 성욕, 수면욕, 재물욕, 권력욕, 소유욕.... 그런데 지금껏 떨쳐내지 못한 욕심이 하나 있어요.”

“바로 명예욕입니다. 이 욕심을 버릴 수 있도록 매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마저 버릴 수 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오롯한 가난의 모습으로 당신을 뵈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니 가난해진다는 것은 얼마나 실천하기 어려운 이상인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가난’에 얼마나 다가서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휴식

공소의 가을 풍경, 고산성당 퇴재공소

촬영 · 기록

박은수 · 김규현



퇴재공소는 1895년에 완공된 단층 5칸짜리 한옥으로, 우리나라 천주교회에서 서울 약현 성당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진 성당이다. 한강 이남의 첫 성당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 한옥성당이다. 1950년 6·25전쟁 때 소실된 것을 2004년에 복원하였으며 전라북도 기념물 제119호로 지정되었다. 복원된 퇴재공소는 가로 3칸, 세로 8칸에 바닥 면적 143㎡인 한옥성당과 나무 종탑으로 이뤄져 있다. 성당 내부는 사제가 신자를 등 뒤로 한 채 미사를 드리도록 제대를 벽에 붙인 옛 모습을 재현했다. 또 신자석 가운데에 고정식 칸막이를 설치해 남녀 신자들이 성당에 들어오면 왼편 오른편으로 갈라 앉고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한 옛날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였다. 전라북도 북부 지역 복음화의 산실 역할을 했던 퇴재 성당은 1942년부터 수청 성당을 거쳐 고산성당 관할 공소가 되었다. 



평신도 연구

분단 70년, 누구를 위하여 좋은 울리나?

변진홍 야고보 한국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 부소장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포스터.

헤밍웨이의 작품 ‘누구를 위하여 좋은 울리나’의 제목은 17세기의 시인이며 영국 성공회 신부였던 존 던 John Donne의 시 제목에서 따 온 것이다. 존 던은 사람이란 그 누구도 ‘나 홀로 섬’일 수 없음을 노래했다. 사람은 누구나 드넓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드넓은 대양의 일부분이라는 것.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죽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의 한 부분이 사라지는 것이고, 바로 그 전체의 한 부분인 ‘나’의 일부가 감소함이다. 아마도 시인은 누군가가 죽었음을 알리는 그 종소리는 바로 나의 죽음이나 같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헤밍웨이는 전쟁터에서의 죽음도 바로 그와 같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다.

직접 스페인 내전에 자원했던 헤밍웨이는 전쟁터에서 서로를 죽이고 죽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를 체험하며 이를 적나라하게 그려냈다. 적군을 한 사람이라도 더 쓰러뜨리기 위해 애를 쓰지만, 실은 그 적군 병사의 죽음도 자신의 죽음과 다를 없다는 것이다. 누군가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를 싸움터에서 오직 명령만으로 애꿎은 병사들이 죽어 나가고, 이를 영웅시하는 전쟁의 야만성과 비인도적 성격을 폭로하는 것이 헤밍웨이가 보여주려고 한 허무주의의 본질이다. 비록 영화 포스터가 멋진 훈남 게리 쿠퍼와 청순하고 아름다운 소녀 잉그리드 버그만의 애틋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으로 치장되지만, 실상 작가는 그 아름다움으로 포장된 전쟁의 비극적 현실과 비문명성을 고발한 것이다.

헤밍웨이가 6·25 한국전쟁을 직접 체험했다면 어떻게 그려냈을지 궁금하다. 우리의 경우에도 <태극기 휘날리며>, <웰컴 투 동막골>과 같은 작품들이 있다. 형제가 남과 북의 군인으

로 갈려서 총부리를 겨누게 된 사연과 뜻하지 않게 남과 북의 군인들뿐 아니라 미군 조종사까지 동막골에 함께 갇힌 신세가 된 웃지 못할 사연을 다룬 것으로, 바로 그 전쟁터에서 빚어지는 분단의 비극을 눈물겹게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헤밍웨이에 못지않다. 어쨌든 지금 분단 70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념을 앞세운 전쟁의 덧없음이고, 앞으로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해 ‘누구를 위하여 좋은 울리나?’라는 탄식이 거듭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통일사도직에서 말하는 ‘통일’은 이처럼 야만적인 전쟁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비인도적이고 이념적인 전쟁을 방지하는 ‘사랑의 연대’를 말한다.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욕망과 이념의 거짓됨이 참혹한 전쟁을 불러오더라도 그 잣터미 속에서 주님께 피신하여 새로운 희망의 싹이 될 ‘가난한 이들(아나뎀)’(스바냐 3,12)과의 연대를 말한다. 통일사도직에서 강조하게 되는 ‘통일’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통일’이 아니라, 그런 모습의 통일을 거두어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교회가 ‘가난한 이들(아나뎀)’과의 연대를 통한 구원의 역사, 그 참된 길을 열어나가는 ‘평화 - 통일’을 뜻한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열병식에 참가하고 귀국한 시점에 우연히 일본을 잠시 들렸을 때, 일본의 몇몇 극우단체들이 중국을 격렬히 비난하고 중국과의 단교를 외치는 것을 보았다. 일본 TV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뿐 아니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열병식 참가를 심하게 비방하는 것을 보면서 동북아 정세가 이미 심하게 요동치고 있음을 피부로 느꼈다. 비록 8·25합의로 급한 불은 끄고, 추석 이산가족방문이라는 출구를 열어놓기는 했지만, 만약 남북관계의 긴장이 이처럼 팽팽한 동북아 정세에 불꽃을 튀게 만들거나 한다면 어떤 상황으로 변질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스페인 내전 당시의 국제적인 상황이나 현재의 상황 그리고 70년 전의 상황이 크게 다를 것이 없음을 우리는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느끼며 대비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한국평협이 추진하고 있는 평화네트워크 준비가 지난 7월부터 본격화되었다. 아직 16개 교구 평협 모두가 참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절반 이상의 교구에서 평화위원회를 구성하기 시작했다. 평협 차원의 평화네트워크는 기도운동에서 시작한다. 평화네트워크는 스바냐 예언자가 말한, 주님께 의탁하며 새로운 희망의 싹이 될 ‘가난한 이들(아나뎀)’의 연대이다. 남과 북의 현실정치와 이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어떤 격랑에 휘말리게 되더라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을 통해 참된 평화를 지켜내고, 그 평화의 열매로 또다시 하느님 구원의 씨앗을 뿌리고 결실을 이루어나가는 한국교회 평신도들의 참된 의지와 사랑을 흠뻑 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분단 70년을 기점으로 출발하는 한국평협 평화네트워크의 시대적 소명이다. 

하느님 구원의
씨앗을 뿌리고
결실을
이루어나가는
한국교회
평신도들의
참된 의지와
사랑을 흠뻑
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분단 70년을
기점으로
출발하는
한국평협
평화네트워크의
시대적
소명이다.



평신도 에세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

김정숙 글라라 서울대교구 시흥동성당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사랑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분께서는 저의 온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았기에 하느님을 위해 전 생애를 투신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수입의 십분의 일을 바치고, 취미생활을 봉사활동으로 바꾸었으며, 제사도 유교방식이 아닌 가톨릭 제례예식으로 바꾸었습니다.

1960년대 농촌 시골 마을에서 살았던 저희 집안은 대대로 미신 행위를 일삼고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집안에 성주(집의 건물을 수호하며, 家神 가운데 맨 윗자리 차지하는 신)를 모시고 살았으며 그런 까닭에 며느리인 저의 친정어머니께서는 당연히 시어머니가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신수와 토정비결을 보고 무당집을 찾아다니며 굿을 하고 점을 쳤으며 심지어 집안에 못을 하나 박아도 방향을 보고 손 없는 날을 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빨랫줄을 댈 때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이러한 어른들의 미신행위는 고스란히 자녀들의 생활에도 전달되어, 여름에는 물가에 가지마라, 몇 월에는 무엇을 조심해라, 삼살바우(삼재살)가 끼었다는 등 온갖 구속과 속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저희 집은 서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집안에서 행해지던 사소한 미신행위들은 그나마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정작 제가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강요

받는 속박들이 너무 많아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문제는 직장 내에서 애사가 생길 때마다 그런 곳에 가면 부정을 탄다며 출입을 못하게 하여 직장 상사나 동료의 애사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끔찍하리만큼 미신행위와 우상숭배를 하셨던 친정어머니께서 42세에 위암 선고를 받고 자택에서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며 투병생활을 하던 중 이웃의 권유로 대세를 받고 1984년에 선종하셨습니다. 성당의 많은 교우들이 방문하여 연도를 해 주셨고, 음식과 제반 사향들을 모두 처리해 주셨으며 어머니는 용인 천주교공원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하느님을 부정하며 상가에 발걸음조차 못하게 하셨던 어머니는 결국 신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친정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저희 가족들은 세례를 받았고, 저는 초등부주일학교 어머니교사를 시작으로 꾸준한 신앙생활을 하던 중 1991년 본당 사순절 대피정을 통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님의 은총으로, 지나온 제 삶에 대한 회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저는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죄에 대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집안의 장녀로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밥을 짓고 집안 살림을 하며 어머니를 도와 가사를 책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동생들을 돌보며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하였으며, 3년 동안 위암으로 투병하시는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병간호를 했기에 누구보다 착하게 살았다고 자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신을 회생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츰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내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될수록 그동안 하느님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가장 큰 잘못이었음을 깨닫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정어머니가 행하고 따랐던 모든 미신행위를 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오만함, 내 생각을 고집하며 세상 것으로 채우고자 발버둥 쳤던 지난날들, 모든 사람들을 내 잣대로 판단하며, 돈과 사람에 집착하여 편견과 이기심에 사로잡혔던 제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회개하였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사랑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분께서는 저의 온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았기에 하느님을 위해 전 생애를 투신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가르치는 대

로 수입의 십분의 일을 바치고, 취미생활을 봉사활동으로 바꾸었으며, 제사도 유교방식이 아닌 가톨릭 제례예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더불어 자녀의 신앙교육에도 철저히였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생활을 통해 저에게 은총과 깨우침을 주시는 대로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 제 삶의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가정의 가훈도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입니다.”(필립 1,21)라고 정하여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기특하게 보셨는지 주님께서 저의 친정과 시댁식구들도 당신 품으로 인도해 주시어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옛날 강 건너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던 아브라함의 조상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그의 후손을 번성하게(여호 24,2) 하신 것처럼 저의 부모님은 하느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나를 사랑하시어 세상 속에서 이끌어 내셔서 “걸음마를 가르쳐 주고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인정의 끈으로, 사랑의 줄로 끌어당겼으며 젖먹이처럼 들어 올려 물을 비비고 몸을 굽혀 먹여주신”(호세 11,3-4)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날마다 “성령의 힘으로 아빠! 아버지!”(로마 8,15)라 외치며 늘 주님 사랑 안에 머물러 “그분 사랑이 나에게서 완성”(1요한 4,12)되기를 바라며 주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립니다. 



평신도 에세이

전례봉사자의 자세

전종환 베르나르도 인천교구 불로동성당



어느 누가 나를 비난하고 무시해도 그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진 않는다. 그래서 이제 미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다만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피할 줄 알고 누가 각이 진 거친 잔을 주면 내가 마실 때는 둥근 잔으로 만들어 부드럽게 마실 줄 안다.

어느 날 강남의 한 상가를 지나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 분이 인사를 한다. “아~ 형제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다 “누구신지?”라고 했더니 “전례 하실 때 몇 번같이 참례했어요 목소리 좋으시던데요?” 제가 잘 몰라서 가우뚱 했더니 “저 사당동 성당 신자예요.”라고 하신다 그 순간 솔직히 무서웠다. 전례봉사하기 시작한 것이 10년이 넘었고 그 자매님께서 목소리 좋다고 한 것은 고맙지만 그 순간 그렇게 점잖은 모습이 아닌 누구와 예를 들어 주차 문제 등으로 다툼을 하고 있거나 본의 아니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다.

미사 전례 봉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우리 구역의 구역장님께서 “베르나르도 목소리 좋은데 전례 봉사할 생각은 없어요?” 해서 시작한 것이 독서였고 전례분과 사목위원이 되면서 미사해설도 하게 되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교구에서 실시하는 전례에 관한 교육은 거의 빠지지 않고 받았다. 성삼일 전례봉사자 교육, 대림절 전례봉사자 교육, 전례분과 사목위원 교육 등을 참 기쁜 마음으로 받으러 다녔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본당 교우를 예상치 않게 만나보니 당황했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본당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곳을 다니던

언행을 조심하여 부족한 나를 예수님의 제사인 미사에 봉사하도록 허락하신 하늘의 높으신 분께 누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을 해야겠다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다.

올 해 초 어느 날 갑자기 목소리가 나 자신의 예전의 목소리가 아니다. 그래도 예정된 전례봉사는 해야 한다. 미사가 시작되어 멘트를 시작하는데 예전의 내 목소리가 아니다.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되는데 미사 해설자의 목소리가 미사 참례자들이 듣기에 불편하면 분심이 생기고 속으로 ‘아, 뭐야’ 하며 짜증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나는 잘 안다. 미사 중에 별생각이 다 든다. 무엇 때문에 내 목소리가 이럴까? 전례 봉사를 처음 시작할 때 목소리 좋으니까 한번 해 보라! 해서 시작한 전례봉사자인데 괴로움 속에 너무 힘든 시간으로 미사를 마치고 성전을 나가지 않고 감실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 본다. 아~담배를 끊어볼까?

그다음 날부터 시도를 해 보았다. 예상은 했지만 쉽지 않다. 커피 마시고 나면 생각이 나고 식사 후에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작정으로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 하느님이

신 예수님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전례봉사는 정말 진심으로 제대로 하고 싶으니 도와주십시오. 그다음부터 담배 생각이 나면 전례봉사를 그만둬야 한다고 속으로 생각하니 슬슬 담배 생각이 줄어 요즘은 아무리 커피, 식사, 음주를 하더라도 아예 담배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주님께서 관여하시니 안 되는 것이 없다.

이제 나의 신앙생활은 40년이 되어 간다. 헛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성된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아들이라고 느끼실 수 있게끔 했을까 하고 반성해 본다. 그동안 주변 형제자매들에게 과연 모범이 되었을까? 그래서 나보다 나이 어린 형제들이 나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이 진심에서 나왔을까? 그 전에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으며 가족에게는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 줬을까? 고개가 숙여지고 답답해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꽤 큰 하나는 배웠다. 어느 누가 나를 비난하고 무시해도 그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진 않는다. 그래서 이제 미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다만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피할 줄 알고 누가 각이 진 거친 잔을 주면 내가 마실 때는 둥근 잔으로 만들어 부드럽게 마실 줄 안다. 이것도 알고 보면 마음으로 항상 만나는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다.

나에게는 대자가 10명이다. 마음은 한 명씩 다 만나서 각자의 얘기를 들어 보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삶의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하나씩 챙겨주고 싶다. 그런데 연락 안 되는 대자가 더 많다. 다 나의 부족이며 주님 앞에 죄인이다. 올 12월에 또 한 명의 대자가 탄생할 예정이다. 이제부터라도 마음과 나의 신앙생활과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신앙 정체성을 송곳의 끝처럼 모아 제대로 된 대부가 되어보고자 한다. 올해 성탄 전에

새롭게 대부가 되는 것은 거의 10년 만이다. 신앙의 신비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전례 봉사자를 한 지 좀 오래되다보니 전례분과장이라는 봉사를 하게 된다. 그래서 해설은 내가 하지만 독서와 보편지향 기도자들을 선정하게 되는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부탁한다. 원래 전례봉사자들은 전날부터 묵상 중에 있으라고 한다. 그러나 “삶에서의 각자의 업무가 있으니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지나침은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독서자들은 독서 시작 전 7번은 읽으시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제 목소리로 독서하게 마시고 주님 목소리가 저를 통해 말씀이 전해지게 해 주세요.”라고 당부한다. 어느 곳에서 미사를 참례해보면 어느 정도 묵상을 하고 독서를 하시는지 바로 알 수 있다. ‘참 깊다’라고 느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책 읽듯이 하는 독서자들을 대하면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위로를 해 보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어느 형제들은 내가 너무 원칙적으로 한다고 볼멘소리를 하신다. 다른 우리네 삶에서 사적인 것이라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그 이상도 이해하기 나름이다. 제대 옆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 주님께서 이런 마음도 주시는 것 같다.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지만 이해하고자 하면 이해하지 못할 허물도 없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하느님이시기에 더 깊은 예를 하늘의 높으신 분에게 드리기 위해 전례봉사를 하러 가야겠다. 



평신도 에세이

참 소중한 열정

김연희 크리스티나 마산교구 남성동성당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루카 1,46-55)

그 열정은 바로 믿음의 힘이요, 마음의 꽃이 아니겠는가?
날마다 부활로 삶을 새로움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 모두 감사 속에서 당신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마산교구 이주사목위원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순회미사가 있는 날(매월 셋째 토요일)은 인도네시아어와 동티모르 상담 통역자인 남편을 따라 종종 동행한다. 마산 집에서 오후 5시 출발하여 구 거제대교 입구에서 광주교구에서 오시는 인도네시아 수사신부님과 합류하여 목적지인 거제 둔덕면 어느 수산회사 기숙사로 향한다. 미사시간은 20시로 정해져 있지만 일정하지 않다. 일터의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주로 어업비자로 입국하여 통영과 고성, 거제지역 인근에 근무하는 30여 명에 달하는 동티모르 공동체만을 위한 테툼어로 봉헌되는 미사이며 간혹 인니(印尼)인들도 참석하기도 한다.

한 달에 한 번. 그들은 고백성사를 보고 뜨거운 재회를 한다. 땀에 젖어 지친 몸으로 다가오며 악수를 청하고 항상 손등에 입맞춤하는 그들과는 나는 겨우 인사말만 소통될 뿐이다.

한번은 현지에 가보니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 친구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당황해 하다가 야간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로 가서 직원을 만났는데 오늘은 바다에 적조 비상이 걸려 기숙사에 못 올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예기치 않은 적조가 발생하여 밤샘 작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순간 긴박하게 돌아갈 작업장들을 상상하며 안타까운 침묵만이 흘렀다.

밤바다 멀리 불빛만 무심하게 반짝였다. 작업 중인 그들에게 손 전화 연결이 안되어 무작정 기다려 보는데 마침 다른 지역에서 오는 일부 친구들이 버스터미널에서 기다린다는 연락이 왔다. 바쁘게 차를 움직여 만나 늦은 이유가 궁금하여 물었더니 작업장을 나선 지 무려 두 시간여 만에 터미널까지 버스를 타고 왔다고 한다. 시외버스 간격이 긴 까닭이다.



기다림 중에 또 어디선가 택시를 타고 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늦은 시간이지만 다행히 밤바다에서 일부 배가 들어왔다. 이윽고 하나둘씩 숙소로 모여들었다. 잠시지만 따뜻한 두 손을 잡고 서로 주님 안에서 행복한 만남의 인사를 나눈다. 참으로 정성을 다해 자신을 바치는 소중한 미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정말 주님을 향한 소리 없는 열정이었다. 그 참 소중한 열정에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도 고요한 사색에 드는 듯하였다.

곳곳에서 어렵게 공동체에 모인 식구들은 가끔은 바퀴벌레가 기어 다니거나 축축한 방바닥에 쭈그리고 앉거나 모기가 앵앵거리는 비좁은 한 칸 숙소 2층 침대에 걸터앉거나 비릿한 내음이 풍기는 식당에 모여 촛불을 밝히고 미사를 봉헌한다. 겨울철에는 난방기도 없는 창고에서 추운 몸 움츠리고 마치 박해시대의 은둔 순교자들 모습과 같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주님께 향하는 경건한 마음을 모으는 까만 얼굴들. 곱슬머리에 붉게 충혈된 눈에는 피곤함이 역력하나 밝은 미소와 눈동자가 흑진주보다 아름답다.

본국의 가정에서는 다들 귀한 아들들. 아~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이 거룩한 시간. 좁은 공간 탓으로 두 친구가 기타를 가슴에다 세워서 성가 반주를 한다. 기쁨과 평화의 빛 노래가 방 안을 가득 메운다. 마친 시간이 11시.

거제 신자 봉사자님이 타 지역에서 온 친구들을 데려다 주고 우리도 마산으로 돌아오면 마무리가 된다. 자정이 넘은 적도 있다. 주님을 향하여 멈추지 않을 모두의 참 소중한 열정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루카 1,46-55) 그 열정은 바로 믿음의 힘이요, 마음의 꽃이 아니겠는가? 날마다 부활로 삶을 새로움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 모두 감사 속에서 당신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평화가 항상 너희와 함께”(루카 24,36) 아멘. 



평신도 에세이

그리스도의 삶 - 십자가의 신비

박성임 클라라 마산교구 회원동성당



그대는 분명 집 안에 십자가를 걸어두었을 것이다.

오늘은 의식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십자가는 그대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십자가는 그대에게 무엇을 뜻하는가?

언제부터인가 나에게 착 달라붙은 십자가, 이제는 그 십자가를 외면할 수도, 벗어 던질 수도 없다. 이미 나의 십자가는 어떤 형상으로든 내 안에 굳게 자리 잡게 되었고 오랜 시간 함께 지내온 친구가 되어 버렸다. 벗어 버리기엔 이미 늦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하여 주님을 받아들인다고 서약을 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겠다는 또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존재 의미는 곧 십자가의 삶이다. 그것이 없다면 내 생애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마저 든다. 어차피 십자가를 받아들이기엔 낯설고 힘든 적응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십자가로 가는 길은 곧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이다. 십자가를 피하고 도망치려 해도 그것은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고 또 다른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는 일이다. 등을 돌려 다른 길을 찾아보지만 또 다른 십자가를 분명 만나게 될 테니까. 지금 내 곁에 가장 가까이에 나를 지탱해주는 십자가, 나의 실존, 내가 바로 그분의 십자가임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신앙의 가장 큰 신비 중 하나다.

요즘은 장문으로만 된 두꺼운 책을 가까이 하기 싫어졌다. 짧고 이해하기 쉬운 간결한 텍스트의 진솔하고 꾸밈없는 내용의 글, 깊은 체험을 통한 묵상과 관상으로 향하는 영성의 길잡이의 신심서적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 짧고 간결할수록 눈이 가는 그래서 어디를 펼쳐도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책을 선호하게 된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점차 알게 모르게 편한 길, 안일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 당연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단순하고 본능적인 삶만을 추구하면서 살아온 결과물일 것이다.

가족이나 이웃에게 혹은 더 나아가 사회로 국가로 다른 이들에게 가슴 속 깊이 울림을 주는 그런 삶. 편리주의와 실용적 가치만을 추구하고 물질만능주의를 지향해 온 우리들로서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아무래도 가톨릭 신자들을 자주 만나게 되면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바로 십자가! 그 엄청난 모순의 참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십자가의 의미를 진실로 이해하고 실행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레 겁을 먹고 용기도 열정도 없는 게 아닐까? 무엇보다 자신이 하느님께 느끼는 부담감 혹은 불편함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나의 십자가만 생각하고 너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불합리한 모순들, 즉 자기합리화, 자기중심 속에 갇혀있는 어리석음 등 십자가의 사랑과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나의 뜻대로 움직이느냐, 주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가?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모순에 대해 묵상하게 되고 내적 성찰을 하게 된다.

십자가 하면 삼위일체의 신비를 묵상하게 되고 삼위일체하면 십자가의 신비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나의 삶에서 도저히 버릴 수 없는 저 십자가, 이미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십자가는 상생의 길이다. 내가 살고 네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길이라는 걸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한다.

교회의 복음화는 나의 복음화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보너스 같은 것이 아닐까. 살아오면서 내 신변으로 날아드는 은총의 십자가들을 하나하나 뽑아내어 던져버렸다. 주님께로 끝없이 던져버린 탄식과 울부짖음과 원망이었다. 나의 자질구레한 일상의 불편함의 십자가를 그분이 지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의 십자가이다. 여태까진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 모순되고 나와 상반되는 저 십자가의 신비를 나와 무관한 듯 무관심하게 바라보기만 했다.

그동안 외면하고 던져버린 크고 작은 바늘들, 어느 누구를 향해 날아갔을 수많은 아픔의 침들을 다시 주워 모아 사랑과 희생의 큰 바늘로 나의 튼튼한 십자가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겠다. 그 길만이 내가 살 수 있고 살아내야 할 영원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나의 십자가 뿐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십자가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이 지고 가신 저 죽음과 부활의 신비인 십자가의 거룩함을 내안에 온전히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가 그분을 모신다면 아니 그분이 내안으로 오신다면 이보다 더 좋은 순 없으리 십자가에 갇힌 삶이 아니라 십자가와 함께하는 여정을 즐기리라. 그분이 항상 그러하셨듯이. 



문화영성 산책

양면성을 지닌 종교의 상품화

김민수 이나시오 서울대교구 불광동성당 주임신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방한하실 당시에 그랬지만 일 년이 지난 지금도 교황님이 방문한 지역에서는 그분의 이미지를 앞세워 교황 방문 관련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데 발 빠르게 움직이며 지역 홍보와 경제이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교황 관련 관광문화의 상품화는 한국 가톨릭교회의 위상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자칫 교황님을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시킬 위험성도 잠재되어 있다.



1. 교황 방한 당시 교황 마케팅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전부터 국내 일부 언론과 기업은 교황 방한이 몰고 올 경제적 파급력을 부풀리고 기대치를 한껏 높이는 역할을 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계산에 넣으면 경제 효과는 1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았다. “경제도 비바 파파(Viva Papa·교황 만세)” “교황 특需, 5000억 원 효과” “새 경제팀의 경제 활성화 정책과 교황 방한이 맞물려 내수(內需) 회복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돈이 도네요...고마워요, 프란치스코” 등과 같은 기사들은 교황 방한의 의미를 거침없이 왜곡시켰다. 세월호 참사로 정국이 얼어붙고 국내 경제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어서 교황 방한을 계기로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애국심의 발로일지는 모르지만 교황 방한이 한국경제의 회복을 위한 대상으로 변질시킨 의도는 매우 불순했다.

교황 방한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드러났다. 광화문 시복식에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황음료, 교황와인, 교황도서, 교황 방문 기념주화 등 교황을 내세운 상품들이 쏟아졌다. 서울 시청과 광화문 주변 호텔들은 높은 객실 예약률을 보였다. 주식시장에는 교황 수혜주까지 등장했고, 기아 자동차의 쏘울이 행사 의전 차량으로 선정되면서 기아차의 주

가가 들썩였으며, 교황과 수행원들이 마신 석수를 생산한 하이트 진로의 주가도 급등했다. 불황의 늪을 헤매는 출판계도 교황 열풍에 힘입어 모처럼 활기를 띠기도 했다. 이처럼 재계는 교황 방한을 이용한 마케팅 전쟁을 벌였다.

2. 교황 방한 1주년을 겨냥한 교황 마케팅

경제적인 짝퉁 재미를 맛보아서일까? 교황 방한 일주년이 다가오면서 교황님이 다녀간 지역의 지자체들은 하나같이 교황님 관련 상품 개발 계획을 보이고 있다. 음성군은 교황이 걸은 길과 머문 방 등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 관광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축복의 길 조성, 교황 실물 사진 등을 설치해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도 역시 교황 방한이 결정된 뒤 한국관광공사 등과 함께 가톨릭 성지순례 상품 개발에 나서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서산시는 교황 방문 기념관과 프란치스코 광장, 가톨릭 성지 순례길 등을 연결한 ‘가톨릭 성지 조성’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3. 종교의 상품화라는 유혹

오늘날 소비사회에서 종교마저 소비자가 선택하는 브랜드화한 상품으로 간주된다. 한국 가톨릭교회의 성장은,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쌓아 ‘브랜드화’에 성공한 결과라고 고백한 어느 개신교 목사의 말처럼 일정 부분 가톨릭교회가 지닌 긍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사람들의 호감에 기인한다. 그러나 브랜드화한 종교 이면에는 신앙과 종교적 전통을 분리시키고 불일치시키는 ‘종교의 상품화’가 도사리고 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그분의 말씀과 행위를 따르지 않는 경우처럼,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언급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외면한다면 교황님은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소비되는 셈이다.

교황 관련 문화관광 상품이 지속가능하려면 그분의 메시지에 담긴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교육과 구체적인 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시간이 지나면서 용도

교황님이
상품화되고,
사람들은
교황님의
언행을
따르기보다
그분의
이미지만을
소비하는 데
익숙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폐기되는 일반 상품과 같은 운명이 되지 않고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이에게 의미로 다가와 변함없이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수 있다. 또한 교회는 스스로 문화적 주체가 되어 종교문화의 콘텐츠화와 그 콘텐츠의 상품화를 통해 신앙의 대중화를 지향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복음을 이 시대에 적합하게 선포하는 문화의 복음화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4. 교황 방한의 재의미화

한국 가톨릭교회는 교황 방한 일주년을 맞아 시복식이 이루어졌던 광화문 광장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기념 바닷돌’을 설치하였고, ‘젊음의 가톨릭 독서콘서트,’ 사진전, 그리고 기념음악회뿐만 아니라 ‘전국 해미성지 순례길 걷기 대회’ 교황발자취 영상시청과 순교영성 강의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였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한국사회와 교회에 남겨준 메시지가 우리에게 성찰적 반성과 구체적인 실천의 계기로 삼은 것이다.

현재 한국 가톨릭교회는 세속화와 중산층화로 인해 물질주의와 편리주의에 물들어가는 위기에 처해 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쉽고 편한 신앙생활의 방식을 자연스레 선택한다. 종교의 상품화와 그에 따른 세속화는 교회가 자본과 권력에 종속되고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빠져들게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복음의 기쁨’이 들어설 자리가 없을 뿐 아니라 현대 물신주의를 표방하게 된다.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교회는 선교적·사목적이기보다 관료적이며 행정적인 태도를 우선시 (<복음의 기쁨> 63항)하게 될 개연성이 커진다.

물론, 가난한 교회,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가 되기를 촉구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를 당장 완벽하게 실현하기는 어렵지만 경쟁과 배척의 자본주의 논리에 저항하고, 상생과 포용의 공동체적 신앙 감각을 회복하고 확산시키는 교회의 신선한 시도가 필요하다. 특히 종교적 상품화의 긍정적인 면을 강화하기 위한 교회의 브랜딩과 이미지 고양 전략으로 ‘낮은 데서 봉사하는 교회,’ ‘자발적 불편과 결핍을 실천하는 교회,’ 그리고 ‘경제정의와 환경정의를 실현하는 교회’를 사회적으로 부각시키면 어떨까 제안해본다. 교황 방한 이후 시작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미사 역시 교황님께서 남긴 메시지를 주어진 현실에 맞게 해석하고 실천하려는 작은 움직임이지만 대사회적으로 한국 가톨릭교회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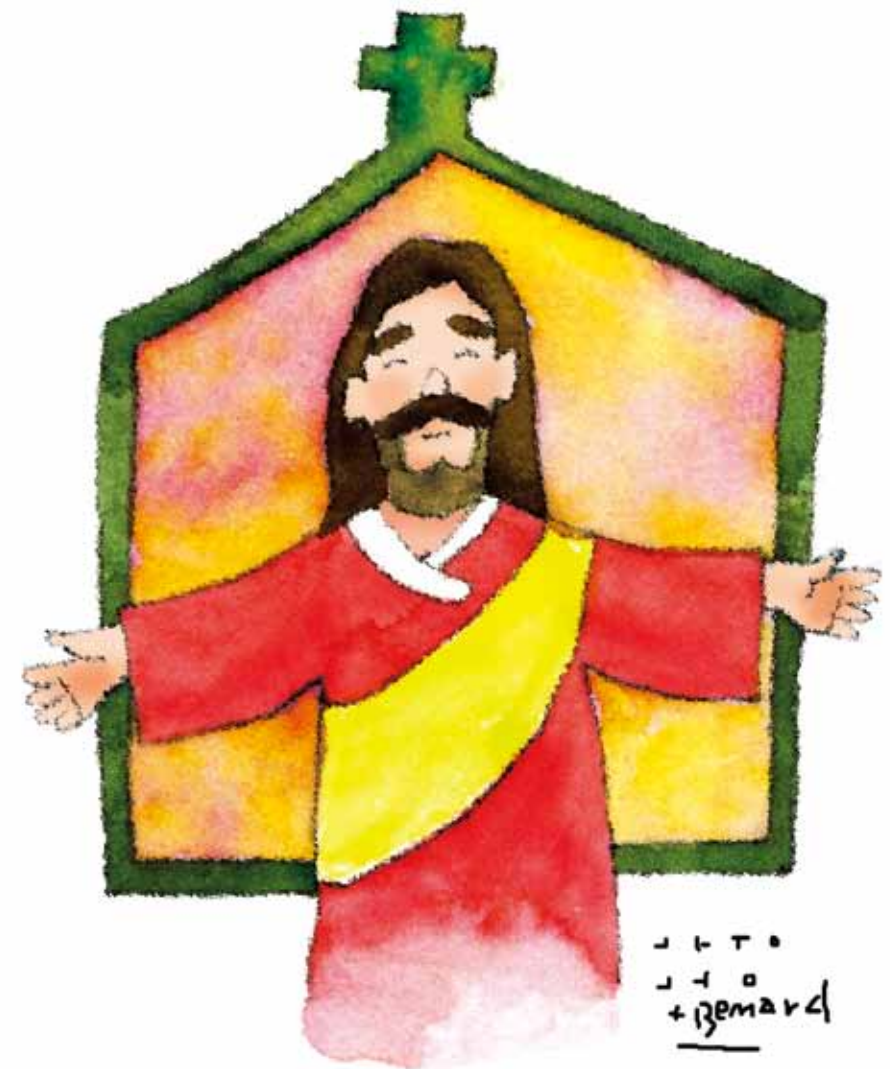


만화 세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나...”

(마태 11,28)

서원만 벨라도 대구대교구 상인동성당 · 대구가톨릭미술인회 부회장



평신도가 된다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

대담 · 정리
신동수 편집위원

이번호 「평신도가 된다」 주인공으로는 지난 4월 취임한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이하 한가여협) 정성연 글라라 회장을 만났다. 푸른 바다와 같은 빛깔의 옷을 입은 정 회장은 수줍어했지만 밝은 미소를 띠며 인터뷰에 응했다.



○ **지난 4월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으로 뽑히셨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는 현재 16개 교구 중 11개 교구 여성단체협의회(연합회) 임원들이 활동하는 단체로 정보교류, 연대를 통한 여성사도직 활성화, 각 교구 여성연합회 지원, 국내외 가톨릭 여성단체와의 연대 등을 활동 목표로 삼는 단체입니다. 올해로 42차 총회와 32차 연수를 치러오고 있네요. 제가 함께한 지는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또 세계가톨릭여성연합회에는 전임 권경수 회장이 이사로 참가해 회원국으로 활동하며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 여성연합회는 가정 안의 엄마의 마음으로 교구장과 일치하며 교구 내 많은 일들에 봉사하고 여성들을 위한 각종 교육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 **한국교회에서 여성 평신도들의 활동은 매우 활발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여성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같은 모습이어

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교회 안과 가정 안에서의 활동은 활발한 반면 사회 속에서의 활동은 여러 가지 시간적 제약이나 많은 이유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슈화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교육에 집중하고 또 여성연합회 활동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합니다.

특히 제가 회장직을 맡으면서 북한 여성들을 위한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북한의 여성들과 교류와 지원 방법을 모색하며 2016년 사업 방향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족화해위원회와의 연대가 필요하겠지요.

○ **올해 10월 세계 주교시노드가 '교회와 현대세계에서의 가정의 소명과 사명'을 주제로 열립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늦게 교회를 알았어요. 이제 세례를 받은 지 27년 정도 되었는데 처음에 개신교회를 가봤는데 저랑은 잘 안 맞더라고요.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며 보편지향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세상에

서 살아야 할 말씀으로 그대로 제게 와 닿았어요. 영세 후 반장 직책을 맡게 되었는데 그때 봉사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도우심을 느꼈고, 과거와 현재가 모두 하느님 말씀 안에 함께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저의 교회 내 봉사활동은 가족의 지지가 아주 컸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 안에서 가족이 각자 자기 역할을 다하자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여성 단체들을 위한 교육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와 연관해서 한국평협의 제창으로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이 범종교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천주교 측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지요? 우리 여성들이 '어머니답게' 살기 위해서 또 '아내답게' '딸답게' 살기 위해서 특별히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주세요.**

한국평협이 펼치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이 참 좋습니다. 저는 여성들이 단순히 엄마 혹은 아내답게 하는 모습은 교회 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폭넓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답게, 믿는 이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 내 여성들의 활동은 어찌 보면 과한 면도 있지요. 반면 사회 속에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성을 귀하게 여기고 여성 스스로도 교회 안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교육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좁은 모습만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많은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내년에 선포식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여성 신자들은 교회 내적으로는 충분히 답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웃음)

○ **작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후 아시아의 복음화라는 한국교회의 사명이 더 크게 인식되고 있**



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가 세계교회 안에서 어떠한 연대와 노력을 펼쳐나갈 수 있을까요?

세계가톨릭여성협의회(WUCWO)는 100여 개 회원단체 중에 이사국은 30여 개 단체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협의회는 현재 활동이 저조한 상태이지만 세계협의회는 권경수 이사를 통해 깊은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활동으로 결의한 내용은 가정복음화를 통한 사랑의 실천과 공동체 안의 화해와 일치, 말씀과 기도를 통한 소명으로 저희도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한국교회 실정에 맞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 교회 여성단체들과의 연대를 위한 부분은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교회의 봉사하면서 혹은 개인적 신앙활동을 통해 얻은 특별한 체험 혹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저는 세례를 통해 정말 많은 사랑을 체험했어요. 교회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아이들은 아주 잘 자라주었어요. 저는 54일 묵주기도를 하면서 쪽지편지를 써서 성모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해요. 저의 지향을 아이들이 때로는 그 내용을 보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이루어주심을 느끼며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화가 많이 날 때 인내심을 갖고 시간을 좀 더 보낸 후에 적어도 3년이 지나야 그에 관한 얘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성령이 함께하심을 느낍니다.



복자들의 영성

조숙(趙淑) 베드로와 권천례(權千禮) 데레사 한국 제2의 동정부부 순교자

김길수 사도요한 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천주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십니다. 어떻게 그분을 배반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 모두 부모를 배반하는 경우에는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찌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의 순교역사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동정부부 순교자라 하면 곧 이순이 루갈다와 유중철 요한을 생각합니다. 순교의 꽃 중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동정부부 순교자가 한 쌍 더 있다는 사실은 그것도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사실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 다. 새로 124위 복자가 시복되면서 복자로 시복된 이 동정부부를 주목하게 됩니다.

정하상 바오로 성인께서는 당시 목자 없는 한국교회에서 사제영입운동에 헌신하셨습니다. 그분은 사제영입을 위해 북경을 다녀오시면서 겪었던 기이한 일화를 자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분은 서울의 한 교우 집에 머물면서 북경에 다녔는데 성문 출입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북경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교우 집과 은밀하게 연락하여 성 밖에서 만나 미리 성물들을 전해 따로 성안으로 들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하상 성인이 국경도시인 의주에서 짐을 운반하기 위해 구했던 말이 뜻밖에도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서울 교우 집과 약속한 날짜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루 늦게 서울에 도착했을 때, 급히 성인을 찾는 한 교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날짜에 만나기로 했던 서울 교우 집의 가족이 모두 그날 관아에 잡혀갔다는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정하상 성인은 한 편 놀라워하면서 말이 다리를 다쳐 늦어진 것 때문에 자



수원교구 양근 성지 마당의 동정 순교 부부상.

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을 깨닫고 주님의 오묘한 섭리에 경탄할 수밖에 없었다고 추억했습니다.

정하상 성인의 사제영입활동의 서울 근거지가 되어 주었고 성인의 활동을 헌신적으로 도와주다가 그렇게 잡혀간 이 서울의 교우 집 주인공이 바로 한국 제2의 동정부부 순교자이십니다. 그는 조명수 베드로이며 관명인 숙(淑)이라는 이름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은 한국 초대교회 건설 공로자 중 한 분이신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따님이신 권천례 데레사입니다. 조 베드로와 권 데레사 부부는 한국 초대교회의 박해 속에서 순결한 백합과 순교의 종려나무가지를 함께 얻은 한국 제2의 동정부부 순교자입니다.

샤를 달레 신부님은 그의 <한국천주교회사>에서 이 아름답고 거룩한 부부를 소개하면서 “신부도 없고 성사도 받지 못하고 미사 성제에 참여하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이와 같이 훌륭한 신자들을 배출하고, 이렇게까지 기묘한 일을 행하는 교회를 가진 민족에게 우리는 크나큰 기대를 갖는다.”고 격찬하였습니다.

경기도 양근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조숙 베드로는 정하상 성인께서 그 유배지에 찾아가 사사했던 조동섭 유스티노의 가까운 친척이기도 합니다. 1801년 박해 때 아직 나이가 어렸던 조숙은 양친과 함께 강원도에 있던 외가로 피신해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는 출중한 재능을 보였고, 성품이 착하고 친절하여 나이보다 훨씬 의연하고 성숙했습니다. 그러나 박해는 계속되고 종교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다른 교우들과의 접촉이 끊어진 상태에서 조숙 베드로는 일상의 신앙생활을 게을리 하게 되고 냉담한 상태에 이르고 맙니다. 그의 이러한 상태는 권천례 데레사와 혼인하기 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탁월한 지도자였던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선생님의 딸인 권천례 데레사는 1801년 신유박해 순교자 권상문 세바스티아노의 동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착실한 천주교 신앙생활의 혜택을 입었지만 여섯 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1791년의 신해박해로 아버지마저 잃어야만 했습니다. 고아가 된 4남매의 막내인 그녀는 어렵게 살았지만 온화하고 상냥한 성품과 애덕으로 외로운 남매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 그녀의 정신과 덕이 아름다운 용모와 어울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권천례 데레사는 더욱 영적 증진에 힘쓰며 주문모 신부님을 뵈고 성사를 받는 행운을 맞이하였을 때, 온전히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순결한 삶을 굳게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해의 시련과 고통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그녀가 열일곱 살이 되던 해에 이번에는 오빠들을 잃는 시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큰오빠 상문은 순교하고 작은오빠 권상학은 추자도로 귀양을 가게 되자 의지할 곳 없는 외톨이가 된 그녀는 어린 조카를 데리고 서울로 피란했습니다. 서울의 친척들은 동정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녀를 찾아와 조선에서 동정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설득시키려고 애쓰며 과년한 데레사를 빨리 결혼시키려고 혼사를 서둘렀습니다. 데레사는 자신의 신앙과 순결을 지키려던 영적 결심을 이해받을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당시 조선사회의 법도와 친척들의 강권을 피하지 못하여 스무 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레사는 그녀의 상대가 냉담한 상태에 있기는 해도 신자임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영적 결심을 지킬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첫날밤, 새신랑과 마주하였을 때 데레사는 기도하며 준비했던 편지 한 장을 내놓았습니다. 남편에게 순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



남편이 포졸들에게 체포되자 권 데레사는 자진해서 남편을 따라 감옥으로 갔다. 그림/ 탁희성 화백

면서 자신의 결심에 남편이 함께해 줄 것을 간절히 청하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간절하고 거룩한 그 편지를 받아 읽은 순간 참으로 기이하게도 조숙 베드로는 오랜 신앙의 열정이 분출하듯 가슴에 차올랐습니다. 그 밤에 거룩한 백년의 약속을 맺은 이 젊은 부부는 서로 신앙 안에서 남매처럼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밤새워 주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더할 수 없는 화목한 가운데 동정부부의 아름다운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몹시 가난하였으나 그 가난을 기쁜 마음으로 참아 받았고 더욱 알뜰히 절약하여 더 궁핍한 이웃들에게 나누는 애덕을 베풀었습니다. 이 무렵 조숙 베드로는 지난날 냉담했던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고, 주변에 냉담한 이들

을 보면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며 회두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열정을 다해 전교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변의 많은 사람이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기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권천례 데레사는 남편이 자신의 소망을 들어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떤 선행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영적 향상을 열망하여 한 주일에 두 번 금식을 지키고 엄격한 금육과 고신주기를 생활화하는 삶을 살았으며, 가끔 식음과 침식을 잊고 기도하며 교리서를 읽고 이웃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등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부를 찾아와서 천주교 교리 해설을 듣고는 만족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부의 삶이 이토록 영성적 관심으로 깊어가

며 신뢰와 사랑이 깊어갈 무렵 정하상 성인을 만나게 되었고 사제영입운동을 돕는 서울의 거점을 자신들 집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들 부부의 동정생활은 15년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그들의 거룩한 결심은 몇 차례 혹심한 유혹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권천례 데레사의 착하고 열절한 권유와 굳건한 의지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들 부부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때마다 더욱 깊은 신뢰와 사랑을 느끼며 서로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영적 사랑과 신뢰가 완숙해 갈 무렵 주님께서는 이 부부를 순교의 영광으로 그 삶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1817년 3월 정하상 성인이 북경에서 돌아오는 길에 미리 나가기로 은밀하게 약속되었던 날 조숙 베드로가 가르치던 예비신자의 몸에서 축일표가 포졸의 눈에 발각된 일이 빌미가 되어 포졸의 급습을 받고 정하상 성인과 약속을 영원히 이루지 못한 채 부부는 함께 체포당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맙니다. 문초를 받을 때, 포정에서는 특히 권천례 데레사의 해박하고 깊은 지식과 정연한 논리에, 그리고 일호의 착오도 없는 교리의 응답에 포졸들도 감탄했습니다. 포졸들은 준엄한 문초에도 불구하고 더욱 겸손하고 굳건한 그들의 자세에 놀라며 혹독한 형벌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오히려 더욱 기쁨에 넘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권천례 데레사는 그 혹독한 옥중 고통 속에서 남편에 대한 열절한 사랑의 절정을 이룹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고난을 함께 받자는 영적 결의와 한없는 사랑과 신뢰에 찬 편지를 옥중에서 적어 남편에게 바쳤습니다. 데레사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참고 기다리며 남편의 마음을 북돋아주면서 하느님께서 내려주실 순교의 은혜에 감사드리자고 권면하였습니다. 조숙 베드로 또한 아내의 사랑과 격려를 받아 관원들의 어떠한 형벌과 심문으로도 그의 신앙을 굽힐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동정 부부는 그들의 영원한 신앙의 동지인 고 바르바라와 함께 옥에 갇힌 지 27개월 뒤인 1819년 8월 3일(음력 6월 13일)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였습니다. 당시 조숙 베드로 나이는 32세였고 권천례 데레사의 나이는 35세였습니다.

교우들은 그들이 순교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시신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때 처형된 권천례 데레사의 시신에는 세 번 맞은 칼자국이 선명한 채 더없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우들은 권천례 데레사의 머리채를 대바구니에 담아 1839년에 순교한 남이관 세바스티아노 성인의 집에 보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바구니를 열면 현묘한 향기가 진동하여 방안을 가득 채웠다고 여러 교우들이 증언하였습니다.

이렇게 순교한 조숙 베드로와 권천례 데레사 동정부부는 1801년 유중철 요한과 이순이 누갈다 동정부부가 순교한 후 18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자랑이며 세계 천주교 순교사에 길이 기억되어야 할 동정부부 순교자를 생각하며 엄숙히 자세를 바로잡습니다. 

포졸들은
준엄한
문초에도
더욱 굳건한
그들의
자세에
놀라며
혹독한
형벌을
가했지만
부부는
오히려
더욱 기쁨에
넘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문학 강좌

인간과 자연

김문태 힐라리오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우리는 우리의 핏줄 속을 흐르는
피처럼 나무 속에 흐르는 수액을
잘 안다. 우리는 이 땅의 한 부분이며,
땅 또한 우리의 일부이다. 향기 나는
꽃은 우리의 자매다. 곰과 사슴과 큰
독수리는 우리의 형제다.
바위, 수풀의 이슬, 조랑말의 체온,
사람, 이 모든 것이 한 가족이다.
시내와 강을 흘러내리는 반짝이는
물은 단순히 물이 아니다.
우리 조상의 피다.



오래전,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어느 봄날이었다. 길을 걷던 까만 교복을 입은 까까머리 학생의 눈이 보름달만큼이나 커졌다. 마치 신발이 땅에 붙은 듯 발걸음을 뗄 수 없었다. 가톨릭 서점 앞 유리창에 붙은 사진 한 장 때문이었다. ‘우주의 한 점인 지구’라는 글귀와 함께 파란 지구 사진이 내걸렸던 것이다. 하얀 구름 사이로 파란 바다와 갈색의 대륙이 보였다. 내가 살고 지구의 모습을 이처럼 생생하게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우주의 한 점인 지구, 파란 행성 속의 한 점인 대한민국, 그 안의 한 점인 나!’

충격이었다.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 그럴까 싶었다. 그날 처음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세례 받은 지 2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처럼 광활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느님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분이실까’를 생각한 것도 바로 그때였다. 피조물인 나와 대자연, 그리고 창조주인 하느님과의 관계를 처음으로 떠올린 날이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8월 6일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에 의미 있는 서한을 발표하였다. 정교회에서 오래전부터 거행해 온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가톨릭교회에서도 2015년 9월 1일로 제정한다는 것이었다. 교황은 서한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명백히 밝혔다.

“영성은 인간의 몸이나 자연, 또는 세상 현실에서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과 일치를 이루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찬미받으소서』 216항)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위기는 우리의 깊은 내적 회개를 요청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생태적 회개입니다. 이는 예수님과 만남의 결실이 그들을 둘러싼 세상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찬미받으소서』 217항). 이처럼 ‘하느님 작품을 지키는 이들로써 우리의 소명을 실천하는 것이 성덕의 삶에 핵심이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 체험에서 선택적이거나 부차적인 측면이 아닙니다.’(『찬미받으소서』 217항).”

이러한 선포는 오늘날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생태계 파괴에 기인한 것이다. 지구의 자연환경은 산업혁명과 과학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불과 이백여 년 만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말았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대기오염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또한 프레온가스 등의 화학물질 과용으로 인해 오존층이 파괴되었다. 급속한 온실효과가 진행되어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빙하가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상승하여 바다에 잠기는 섬들이 속출하고 있다. 기상 이변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뭄과 홍수, 폭염과 폭풍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사막화에 따른 황사와 공해에 따른 산성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는 아마존의 열대우림과 같은 울창한 숲들이 사라지고, 그곳에 서식하던 수많은 생명체들이 멸종하고

있다. 편리한 과학 기술의 무분별한 적용과 자연을 정복하겠다는 인간의 그릇된 인식, 그리고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이러한 현상들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문득 미국의 해양생물학자이자 대중과학작가인 레이첼 카슨(1907~1964년)이 떠오른다. 그녀는 <타임TIME>지가 선정한 20세기를 변화시킨 100명의 인물 중 한 명이었다. 대규모 농업을 꿈꾸던 1950년대 미국에서는 해충 박멸이 무엇보다 골칫거리였다. 바로 그때 DDT라는 기막힌 살충제가 개발되었다. 비행기로 그 살충제를 대량 살포한 며칠 뒤 사람들은 일제히 만세를 불렀다. 그토록 속 썩이던 벌레들이 모조리 땅에 떨어졌던 것이다. DDT의 위력은 막강하였다. 실로 과학의 승리이자 인간의 쾌거였다. 그 해 곡물을 비롯한 농산물이 넘쳐나 풍년을 이룬 것은 물론이었다. 문제는 그 이듬해였다. 새들이 지저귀는 봄이 왔건만, 숲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하였다. 지난해 살포된 DDT에 오염된 지렁이를 비롯한 동식물 먹잇감으로 겨울을 난 새들이 대부분 죽거나 불임이 된 탓이었다. 새끼들이 부화하여 한창 생기 넘쳐야 할 숲이 깊은 침묵 속에 묻힌 까닭이었다. 그 상황을 기록한 책이 1962년에 발표된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Silent Spring)』이었다. 결국 1963년 미국 의회는 잔류 농약이 동식물 조직에 축적되어 그 연쇄작용으로 피해가 확대된다는 레이첼 카슨의 증언을 청취하였다. 아울러 대통령 과학고문 위원회가 ‘농약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 이후 DDT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은 동양에서도 꾸준히 있어 왔다. 맹자는 4촌(약 16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짠 그물로 고기를 잡고, 한 자 이상의 물고기만 시장에 내다 팔면 대대로 물고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영성 순례 거룩한 빈자를 찾아서3

황인수 아나시오 성바오로수도회 수사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지하는 법이며 보이지 않는 것, 가령 사랑이나 믿음이나 선의 같은 것들은 소유하지 않는 빈 마음에 깃드는 법이다. 복음서 말고 따로 규칙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던 성인의 마음은 바로 그런 것이었으리라. 그러나 이 단순한 진리를 잊으면 사람은 보이는 것만 좇으며 살게 된다.

퀀타발레의 베르나르도에 대한 일화

어느 날 베르나르도는 몰래 하느님의 사람에게 가서 자기 결심을 털어놓고 어느 날 저녁에 만나기로 하였다. 프란치스코는 기쁨에 사로잡혀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에게는 아직 함께할 동료가 없었는데 베르나르도가 거룩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이 되자 프란치스코는 크게 기뻐하며 베르나르도의 집에 가서 온 밤을 함께 지냈다.

베르나르도가 그에게 물었다. “누가 많은 적든 주인의 재산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소유하고 싶지 않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받은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라는 답에 베르나르도가 말했다. “그렇다면 저의 재산 모두를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성인이 말했다. “날이 밝는 대로 교회에 가서 복음서를 찾아봅시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알아봅시다.”

날이 밝자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형제가 되기를 원하던 피에트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아시시 광장 근처의 산 니콜로라는 성당에 들어갔다. 그들은 학식이 많지 않아 복음서에서 세상을 포기하

는 대목이 어디인지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복음서를 처음 펼 때 당신의 뜻을 보여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리보토르토의 수도원 성당에는 프란치스코가 여기 살던 당시의 움막을 재현해 놓았다. 움막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가운데 움막의 벽에는 하얀 십자가가 붙어 있다. 십자가 옆에 붙어 있는 명패에는 프란치스코와 첫 동료들에게 십자가가 기도서였다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말이 새겨져 있다.

“프란치스코와 그의 동료들은 아시시 근처 버려진 움막을 거처로 삼았다. 하지만 시간 기도를 바칠 기도서가 없었으므로 밤낮으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책을 펼쳐 읽고 또 읽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선포하라고 하신 사부의 말씀과 모범을 따랐다.”

처음에 십자가 위에서 프란치스코를 부르셨던 예수님은 이렇게 그의 형제들에게도 말씀하시게 된다. 사랑은 사람의 마음속에 살지만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산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형제자매들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내 형제자매들 속에 사신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기를 먹을 것이라 하였다. 치어를 잡지 않고 남획을 방지하기 위한 묘책이었던 것이다. 또한 초목의 잎이 말라 떨어진 이후에 벌목을 하면 자자손손 목재를 쓸 것이라 하였다. 이 역시 자라는 생명체를 해치지 않고 남벌을 막기 위한 혜안이었다.

우리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 신라의 귀산이라는 사람이 수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원광법사에게 가르침을 청하였다. 그러자 원광법사는 그 유명한 세속오계를 내렸다. 사군이충(事君以忠), 사친이효(事親以孝), 교우이신(交友以信), 임전무퇴(臨戰無退), 그리고 살생유택(殺生有擇)이 바로 그것이었다. 귀산이 고개를 가우뚱하며 살생유택만은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법사가 말하길 “6제일과 봄·여름에는 살생지 아니한다는 것이니, 이는 때를 택하는 것이다. 또한 말·소·닭·개처럼 부리는 가축을 죽이지 않고, 고기가 한 점도 되지 못하는 미물을 죽이지 않는 것이니, 이는 사물을 택하는 것이다.”(『삼국사기』45, 열전5, 귀산)라 하였다. 살생에 있어 때와 사물을 가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인간과 자연이 어떤 관계를 맺고 지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었던 것이다.

어떻게 땅과
하늘을
사고 팔 수
있는가?

신선한
공기와
물방울이
우리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사가겠다는
것인가?

한편, 1854년 미합중국의 피어스 대통령은 아메리카 원주민이 사는 땅을 매입하고자 하였다. 그때 스쿼미시 부족의 시애틀 추장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날까지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경종이자 묵상거리이다.

‘워싱턴에 있는 대통령이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말을 전해왔다. 하지만 어떻게 땅과 하늘을 사고 팔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은 우리에게 생소하다. 신선한 공기와 물방울이 우리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사가겠다는 것인가?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신성한 것이다. 반짝이는 소나무 잎, 바닷가 모래밭, 짙은 숲속의 안개, 수풀과 지저귀는 곤충들 모두가 우리의 기억과 경험 속에 신성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땀줄 속을 흐르는 피처럼 나무속에 흐르는 수액을 잘 안다. 우리는 이 땅의 한 부분이며, 땅 또한 우리의 일부이다. 향기 나는 꽃은 우리의 자매다. 곰과 사슴과 큰 독수리는 우리의 형제다. 바위, 수풀의 이슬, 조랑말의 체온, 사람, 이 모든 것이 한 가족이다. 시내와 강을 흘러내리는 반짝이는 물은 단순히 물이 아니다. 우리 조상의 피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땅을 팔면, 이 땅이 신성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호수에 비치는 모든 것은 우리 민족 삶 속의 사건과 기억을 말해준다. 졸졸 흐르는 물소리는 내 아버지의 아버지의 목소리다. 강은 우리의 형제다. 우리의 갈증을 달래 주고, 우리의 카누를 옮겨주고, 우리의 아이들을 키운다. 그러니 당신들은 형제를 대하듯 강을 친절히 대해야 한다.’

프란치스코의 공동체가 이곳 리보토르토에 살던 어느 밤에 한 형제가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했다. “아이고, 아이고, 나 죽겠다!” 등불을 밝힌 프란치스코가 무슨 까닭인지 묻자 그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라고 대답했다. 성인은 먹을 것을 준비하여 모두가 함께 먹도록 했다. 울던 형제가 무안을 당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이런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결코 전에 살던 것처럼 살지 못한다. 그들은 형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프란치스코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맛세오는 라 베르나를 떠나는 프란치스코를 회상하면서 “그분은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가 버렸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프란치스코의 공동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다. 길은 멀고 구불구불하지만, 가는 길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것은 정다운 길동무, 같은 뜻을 서로의 마음에 품고 가는 형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레치오는 항상 성탄입니다

순례를 떠난 지 일주일이 되었다. 피곤하다. 길을 떠난 사람의 몸과 마음이 이런 것일까. 성체 성사를 세우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 그분 역시 먼 길을 걸어왔고 그래서 힘든 인생길을 걸어온 제자들의



그레치오 성지 전경.

치지를 잘 아셨으리라. 당신이 떠난 후에 제자들이 길을 걷는 데 대한 걱정도 있었을 것이다. 머리로 아니고 손도 아니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그래서였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서울에서는 별로 안 걸던 사람들이 순례길에 나서 걷기 시작하자 발바닥이 아팠다. 저녁이 되어 발을 물에 담그면 그 피로가 씻어지는 것 같았고 그렇게 다음날이면 괜찮아져서 다시 걸을 수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허리가 아프다. 배낭에 짐이 너무 많은 게지. 여행안내서, 성경, 성무일도서, 미사책, 공책... 저녁이 되면 몸은 노곤해지고 눈이 절로 감기려고 한다. 내가 지고 다니는 짐은 지금의 내가 부여안고 있는 걱정, 산물이라. 순례하려면 정보가 있어야 하고 무언가 메모도 해야 하고 우산도 필요하고 이런 연장도 있어야 하고 저런 도구도 있어야 하고... 오래전에 순례 갔던 일이 떠오른다. 그 순례지는 해발 천 미터쯤 되는 산 위에 있었는데 함께 갔던 연세 든 수녀님이 오르막길을 힘들어하셨다. 배낭이 무거워 보여 “제가 좀 쳐드릴까요?” 했더니 “무거운 것은 배낭이 아니라 내 자신이겠지요”하는 대답이 돌아왔다. 지금 내게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 짐일까? 내 자신일까?

그레치오Greccio 역에 도착한 것은 오후 두 시 반. 역에서 나오자 길가에 꾸며놓은 동굴이 보이고 “그레치오는 항상 성탄입니다”라는 말이 적혀 있다. 그레치오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처음으로 성탄 구유를 만들었던 곳이다. 성탄절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성당에도 집에도 구유를 꾸미고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는 풍습이 여기 그레치오에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순례 떠나기 전에 예약해놓은 민박집을 찾아 집을 풀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대한 애착이 특별한데 민박집 주인인 루치아 아주머니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레치오 얘기를 시작하자 얼굴에 화색이 돈다. 본래 부부가 로마에서 살았는데 은퇴한 뒤 고향인 그레치오에 와서 민박집을 하고 있단다. 사람은 자기가 나고 자란 땅과 뗄 수



첫 구유가 놓였던 바위 위의 제대.

없는 존재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여기 와서 그것을 더 느낀다. 움브리아 지방을 다녀 본 사람은 누구나 말하게 될 것이다. “아, 이런 땅이니까 프란치스코 성인이 나셨구나!”하고. 이렇게 평화로운 산과 들, 강과 숲을 바라보며 사셨으니 세상 만물을 형님이며 아우, 누이라 부르게 된 게 아닐까.

사람은 태어난 땅을 닮지만 그 땅을 가꾸는 것도 사람이다. 내가 난 땅도 아름답기로는 세상 어디에 빠지지 않는다.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들 하니까. 하지만 지금은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 산을 깎고 강에 보를 세우고 하느라 온 땅이 몸살을 앓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게 망가진 땅은 이제 어떤 사람들을 낳을까. 이곳 그레치오에서 프란치스코 성인은 막 태어난 예수님을 바위 위 구유에 모셨는데... 생각에 잠겨 길을 걷다 보니 벌써 그레치오 성지다. 우리 민박집에서 여기까지는 우리 걸음으로 오 분 정도 거리지만 그레치오 마을까지는 십오 분 이상을 걸어야 한다.

프란치스코가 그레치오에 처음 온 것은 1217년 여름인데 그때는 산 위에 거처를 두고 마을에 내려와 말씀을 선포했다고 한다. 그레치오 사람들은 성인의 말씀을 매우 좋아했으므로 프란치스코에게 그곳에 머물러 달라고 청했고 그 동네의 조반니 벨리타Giovanni Velita라는 경건하고 부



한국 구유.

유한 사람이 성인과 형제들을 위해 집을 짓기로 했다. 처음에 성인은 별로 내키지 않아 했지만 형제들의 은수처가 마을에서 돌을 하나 던져 떨어지는 만큼의 거리에 지어지는 조건으로 허락했다고 한다. 그래서 한 아이에게 횃불 하나를 주면서 가능한 한 멀리 던지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이삼 킬로미터 떨어진 바위 부근까지 날아가서 주위를 태웠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바위 부근에 동굴을 파고 은수처를 지은 게 지금의 그레치오 성지가 되었다는 얘기가.

성지 입구 계단을 올라가 부근을 둘러본 뒤 구유동굴에서 드리는 미사에 참례했다. 성인이 1223년 성탄에 처음으로 구유를 모셨던 동굴에서 드리는 미사. 잠비아에서 온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수녀님들이 뽀뽀bomba어로 아름다운 성가를 불러주셨다. 함께 있던 연세가 높은 이탈리아 수녀님이 전에 한국에서 선교사로 사셨노라고 반가워하신다. 강미란이라는 우리 이름도 갖고 계시다고. 소년이 던진 횃불이 멀리 날아가 바위 위에 프란치스코 성인의 거처를 짓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어떤 이들에게, 나고 자란 땅을 떠나 생면부지의 땅에 가서 등지를 틀게도 하신다. 그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게 하신다.

그레치오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모시고 다니던 아기 예수님의 땅, 그러니 이곳은 프란치스코들의 베들레헴이다. 미사가 끝난 구유 동굴 앞에 머물러 처음으로 구유가 모셔졌던 바위틈을 바라본다. 거기 누워 계셨을 프란치스코 성인의 아기 예수님 모습에 내 마음속 구유에 계시는 아기의 얼굴을 비추어본다.

내 손에 맡겨진 하느님

그레치오 성지 성당에 들어서니 제대 전면의 하얀 성모님 모습이 눈에 띈다. 백합꽃에 둘러싸인 성모의 모습을 표현한 테라코타다. 첫 성탄 구유가 꾸며진 곳이니 어머니가 계시는 것도 당연한 일. 성당 앞자리에 나란히 앉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모습이 아름답다. 순례는 잠시 접어 두고 그들이 뒤에 나도 좀 앉아 있었으면 싶다. 기도가 하느님을 만나는 일이라면 저렇게 그분 앞에 앉아 있는 일은 자신 안에 하느님이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말했다고 한다. “회심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마리아가 된다. 그는 그리스도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1223년 12월, 동방에서 돌아오던 성 프란치스코는 그레치오에 사는 조반니 벨리타에게 보름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을 준비하게 한다.

“그레치오에서 우리 주님의 축제를 지내고 싶으면 빨리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준비하십시오. 우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아기가 겪은 그 불편함을 보고 싶고 또한 아기가 어떻게 구유에 누워 있었는지, 그리고 소와 당나귀를 옆에 두고 어떤 모양으로 쉼터 위아래에 누워 있었는지를 나의 눈으로 그대로 보고 싶습니다.”

성탄절 밤이 되자 동네 사람들이 초와 횃불을 들고 구유가 차려진 그레치오의 동굴에 모여들었고 부제였던 성인은 복음을 노래한 후 주님의 성탄에 대해 설교하였다. 전설에 따르면 그 때 말구

유에 어린 아기가 누워 있었는데 그 아기를 프란치스코가 다가가 깨웠다고 한다.

구유의 고향답게 이곳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구유가 전시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닥종이 인형으로 만들어진 우리 식 구유도 있다. 전시장 입구에는 전통적인 모습의 구유가 있다. 성모 영보, 목동들에게 나타난 천사들, 이집트로 피난하는 성가정, 무죄한 어린이들의 죽음과 같은 성탄 전후의 이야기들도 함께 꾸며져 있는데 조명이 차례로 그 장면들을 비추어 예수님의 탄생이 단순히 그분의 태어남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

붉은 빛 아래 드러나는 무죄한 어린이들의 살해 장면엔 눈길이 오래 머문다. 사나운 표정의 군인이 한 손으로는 넘어진 어머니 품속의 아이를 거머잡고 다른 손으로는 칼을 겨누고 있다. 생명은 죽음이 기다리는 땅에 온다. 그리고 생명은, 하느님은 그 모든 위협과 공포, 고통을 사신다. 교회는 성탄 팔부 축제 중에 무죄한 어린이들의 순교를 기념하지만 그것이 단지 이천 년 전만의 일일까.

나는 죽었어요, 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
나는 죽었어요. 어린 아이인 나는
굴뚝을 지나 바람 속에,
지금 바람 속에 있어요.

아우슈비츠엔 흰 눈이 덮였고
겨울의 추운 날
연기가 천천히 하늘로 올라요.
지금 나는 바람 속에
바람 속에 있어요.

아우슈비츠엔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거대한 침묵만이 떠돌고
이상도 하지요,

이 바람 속에서도 나는
아직 웃을 수가 없어요.



폰테 콜롬보 수도원.

아직 웃을 수가 없어요.

나는 알고 싶어요,
사람이 어떻게 제 형제를 죽일 수가 있을까.
우리는 수백 만
여기 바람 속에 먼지가 되어
먼지로 날고 있어요.

대포의 굉음 다시 울리고
야수 같은 인간의 마음
아직도 피에 굶주려
다시 우리를 바람 속으로 날려 보내요.
다시 우리를 날려 보내요.

나는 알고 싶어요.

언제나 사람들은 배우게 될까,
형제를 죽이지 않고 사는 법을.
그리고 바람은 언제나 편히 쉬게 될까.
바람은 언제나 편히 쉬게 될까.

이탈리아의 록 밴드 노마디 *nomadi*가 부른 ‘바람 속 아이의 노래 *La canzone del bambino nel vento*’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이 태어나던 무렵 헤로데는 베들레헴과 그 일대의 두 살 아래 아이들을 모두 죽여 버렸다. 세상의 왕이 태어났다는 동방 박사들 이야기를 듣고 왕좌를 잃을까 두려워 저지른 일이었다.

아우슈비츠든 중동이든 아시아, 아메리카, 아

프리카 어느 곳이든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마찬가지다. 권력과 재물, 힘을 탐하는 이들은 어디서나 제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 폭력을 휘두른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 복음서에서 하늘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우리가 사는 땅과 산, 바다에도 '바람 속 아이의 노래'가 얼마나 많이 숨어 있는가. 우리 근대사와 현대사를 들여다보면, 아니 당장 매일의 신문 속에서도 인간들이 저지르는 무서운 죄에 전율하게 된다.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하느님의 희망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지만 그러나 그 생명은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태어나시는 하느님을 돌보는 일이 바로 이 손에 맡겨져 있다. 그레치오의 동굴 속, 첫 구유 앞에서 아기 예수를 안아 든 프란치스코 성인의 마음속 생각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하느님의 법, 인간의 법

아침을 먹고 민박집을 나선 길. 폰테콜롬보 Fontecolombo에 가려면 버스를 타야 하는데 표 파는 곳이 없다. 난감하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다가 기사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우선 차에 타란다. 그러더니 다음 정류장에 도착하자 저쪽 카페에 가서 알아보라는 것이다. 카페에서 버스표를 같이 판다는데 하필 거기도 표가 없다. 그렇게 두어 군데 찾아보았지만 허사, 결국 목적지에 도착해 버렸다.

“할 수 없네. 나중에 버스표 사서 처리해요.” 선글라스를 낀 멋진 버스 기사가 우리를 내려 주면서 말했다.

“음, 이탈리아에서는 버스 기사도 멋진 말이야!”

잡짓 감탄을 했지만 선글라스 낀 외모보다 멋진 것은 사람에 대한 이네들의 믿음이다. 표 없이 버스를 탈 수 없는 것이 규칙이라면 사람을 믿



그리스도로부터 회칙을 받는 프란치스코.

어야 한다는 것은 더 큰 규칙인 것이다. 규칙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고 누구나 믿음에는 믿음으로 응답한다는 것이 이네들의 사고방식 아닌가 싶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각박해지는 곳에서는 점점 더 규칙과 법을 따지게 되지만 그런 곳일수록 살기 좋은 곳은 못 되는 것이다.

폰테콜롬보 성지는 해발 549미터쯤 되는, 참 나무가 울창한 산 속에 자리하고 있다. 이 산의 본래 이름은 라이니에로Rainiero산이었는데 1217년 이곳에 왔던 성인이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어 불렀단다. 성인은 산에 오르다 아마 목이 말랐던 게지. 그 참에 맑은 샘물을 발견했는데 하얀 비둘기들이 거기에 와서 목을 축이고 있었던 모양이다. 폰테콜롬보는 '비둘기의 샘'이라는 뜻이다.

이곳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작은 형제들의 규칙서를 기록한 장소로 유명한데 '프란치스코의 시나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

은 시나이 산에 빗대어 프란치스코회원들의 규칙서가 탄생한 이곳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그것이 1223년의 일이니까 성인이 세상을 떠나기 3년 전의 일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회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학식 있는 형제들을 중심으로 규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프란치스코는 괴로워한다. 규칙이라면 복음서로 충분하지 않느냐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형제들이 많았다. 사랑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사랑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라고 믿는 이들도 있는 법이다.

그 옛날 프란치스코가 이곳에 왔을 때는 막달레나 경당이라고 부르는 작은 성당과 1225년 눈병을 치료한 작은 건물뿐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프란치스코와 시에나의 베르나르디노Bernardino di Siena 성인에게 봉헌된 성당과 수도원 건물이 순례자를 맞는다. 성당 내부 왼쪽 벽에는 수도회 규칙을 기록하는 프란치스코의 모습을 담은 나무 조각품이 걸려 있다.

1223년 성인은 레오 형제와 교회법을 잘 아는 다른 형제와 함께 이곳에 온다. 40일간 바위 동굴에서 기도와 단식을 한 다음 회칙을 레오 형제에게 구술했는데 전설에 따르면 예수님이 성인에게 나타나 회칙을 일러 주었다고 한다.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 판을 받은 모세처럼 프란치스코도 하느님으로부터 회칙을 받았다는 얘기가. 그때 예수님이 나타난 나무가 동굴 근처에 있었는데 1622년 폭설 때문에 등걸이 부러지고 말았다.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 그루터기는 순례자들이 던져 넣은 쪽지들로 빼곡하다. 각자 하느님께 바라는 것들을 적어 넣은 기도 쪽지다. 이 그루터기의 몸통이었던 나무를 다듬어 당시 장면을 새긴 것이 지금 성당에 있는 이 작품이라고 한다.

“작은 형제들의 규칙과 삶은 이것이다. 즉 자기 소유는 아무것도 없이 정결과 순명을 살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지키는 것이다.”

바위 동굴에 잇대어 세워진 성 미카엘 기도소에 이런 말씀이 새겨 있다. '아무것도 소유함 없이 정결과 순명으로 복음을 사는 것.' 작은 형제들의 삶이 이렇게 무서우리만큼 단순하게 요약된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지하는 법이며 보이지 않는 것, 가령 사랑이나 믿음이나 선의 같은 것들은 소유하지 않는 빈 마음에 깃드는 법이다. 복음서 말고 따로 규칙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던 성인의 마음은 바로 그런 것이었으리라. 말이 많아지고 글이 길어질수록 사람이 숨 쉴 공간은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나 이 단순한 진리를 잊으면 사람은 보이는 것만 좇으며 살게 된다.

내가 떠난 도시의 높은 건물과 도로와 차들, 풍족한 살림살이를 생각한다. 그것들을 지탱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이니 건축법이니 헌법이니 하는 것들이지만 정작 그것들은 사람들의 선의라는 바탕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내가 사는 나라는 믿음이 라든가 사랑, 선의 같은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삭막한 곳이 되어 가고 있다. 어쩌면 법조차 법 노릇을 못하고 재력과 권력, 무력이 이미 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답답한 마음으로 동굴과 맞닿은 성 미카엘 기도소에 들어간다. 더할 나위 없이 단출한 제대와 동굴이 순례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동굴 안에는 나무로 된 십자가가 하나 놓여 있어서 여기가 성인이 앉아 기도했던 곳인가, 짐작케 한다.

성 프란치스코가 작은 형제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께 들었던 곳. 무릎을 꿇고 잠시 머문다. '주님, 제가 사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찾아 살고 있습니다... 더 높이 더 빨리 더 편하게 더 풍족하게 사느라 이웃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곳을 떠나 리에티로 가는 길은 3킬로미터가 넘는 산길이다. 그런데도 한참을 여기서 머뭇거리는 것은 보이는 모든 것을 지탱하시는 그분, 하느님 곁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고 싶은 순례자의 마음 때문.



영화 속 '인간과 세상'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대현 요나 영화평론가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리고 생명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같다.
지위가 높다고, 부자라고 가난하고 낮은 사람보다 생명의 가치가 더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에게나 삶은 '우주'이다.



드라마/ 2015.7.22/ 139분
한국/ 15세관람가/ 감독 최동훈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사소한 것이든, 일생을 좌우할 중요한 것이든 우리는 늘 '선택 앞에 선 인간'이다. 그 선택이 늘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좋은 것, 편안 것이라면 얼마나 좋으랴. 어떤 선택을 해도 차이가 없다면 무슨 고민이 있으랴.

선택 앞에 선 인간의 갈등과 비극은 그 결과를 미리,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데 있다. 선택이란 높은 좋은 것만 가지고 있지 않고, 양쪽을 균등하게 나누지도 않는다. 선택은 득과 실이 있고, 선과 악이 있고, 해운과 불행을 동시에 가진 '두 얼굴'이다. 그중 무엇을, 누구를, 어느 쪽으로 가느냐는 각자의 몫이다.

모든 선택이 불확실한 것은 아니다. 어느 쪽을,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누구나 알고 있는 분명한 것들도 있다. 이를테면 악이 아닌 선, 거짓이 아닌 진실, 배신이 아닌 믿음, 욕심이 아닌 양심, 미움이 아닌 사랑처럼 언제 어디서나 인간에서 소중하고 변하지 않는 '보편적 가치들'이다. 그렇다고 모든 인간이 이를 선택하지는 않는다. 세상은 선한 사람만, 진리만을 믿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만 사는 곳이 아니다. 더구나 광기와 폭력, 억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쳐 최소한의 생존조건마저 위협하는 질곡의 시대에는.

영화 <암살>에서 독립군 저격수 안옥윤(전지현), 폭파전문가 황덕삼(최덕문), 속사포(조진웅)는 그런 시대에도 양심과 정의를 선택했고, 밀정 엄석진(이정재)과 친일 앞잡이 강인국(이경영)은 반대로 탐욕과 배반을 선택했다. 소위 '암살 3인조'는 조국과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고, 엄석진과 강인



국은 자신의 목숨과 탐욕에 집착해 민족과 동료를 배신하고 가족의 생명까지 서슴지 않고 빼앗았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리고 생명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같다. 지위가 높다고, 부자라고 가난하고 낮은 사람보다 생명의 가치가 더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에게나 삶은 '우주'이다. 조국과 동포를 짓밟은 일본군 사령관과 친일매국노를 '암살'하러 나선 '3인방'이라고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우주를 버리면서까지 동포들의 우주를 조금이라도 더 되찾아주려고 결심했다.

반대로 같은 상황 앞에서 엄석진과 안옥윤의 아버지인 강인국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다. 자신의 목숨을 건지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 일본 밀정이 됐고, 일본의 앞잡이가 됐다. 백범 김구 선생의 심복인 엄석진도 처음에는 '3인방'과 같은 선택을 했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일본경찰의 모진 고문에 굴복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다. "너도 한번 당해 봐."라고. 독립군을 돕는 아내를 가차 없이 죽인 것도 모자라 쌍둥이 딸 미츠코까지 안옥윤으로 오인해 죽여 버린 강인국도 공주처럼 살아 정의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쌍둥이 딸이 그랬듯 "매국노? 여기서서 다 그렇게 살아."라고 항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거짓이다. '3인방'은 계획이 어긋나 자신들이 죽는 줄 알면서도 암살의 거사를 강행했고, 돈만 받으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청부살인업자 하와이 피스톨(하정



우)은 엄석진의 요구대로 '3인방'을 죽이는 대신에 목숨 걸고 그들을 구하고, 그들의 일을 돕는 '변심'을 한다. 배신과 변심은 둘 다 마음과 행동이 바뀌는 것이지만 그 방향은 반대다. "이렇게 몇 놈 죽인다고 독립이 되느냐."고 하와이 피스톨은 비아냥거리지만, 독립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독립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우리(민족)이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은 알려주지는 안옥윤의 말에 돌아선다.

안옥윤처럼 나라를 빼앗긴 일제 식민지시대에 많은 우리 동포들은 이렇게, 단지 우리는 죽지 않았다. 이렇게 아직도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단지 알려주기 위해 패배가 분명한, 죽음을 던지는 길을 선택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진리이고, 정의이고, 양심이기에 때문이었다. 역사는 그들을 모두 기억하지도, 기록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기록에 없고, 후세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들의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들에 의해 역사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인간의 보편적 삶과 가치는 영원히 지켜지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는, 선택이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다. 정의가 그렇고, 양심이 그렇고, 선이 그렇다. 정의라고 믿는 것, 양심이라고 믿는 것, 선이라고 믿는 것과는 다르다. 믿는다고 거짓이 진리가 되고, 악이 선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또 베드로처럼 부정한다고 진리가 거짓이 되지도 않는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도 고난과 죽음의 길을 기꺼이 선택했다.



최동훈 감독의 <암살>은 시의적절한 소재와 흥미진진한 구성, 세련된 연출 감각, 스타파워를 살린 캐스팅으로 만든 상업영화이다. 해마다 광복절은 오지만, 70주년의 의미가 특별한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그 짙어진 과제가 남아있고, 무엇보다 그 역사를 경험한 세대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만 이름 없이 존재하는 때가 다가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더욱 그들의 존재가 소중하고, 그 마음이 '애국'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암살>은 잘 알고 있었다. <국제시장>처럼 1,0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그것을 확인하러 몰려들었다.

<국제시장>이 역사의 수레바퀴에 매달려 격동의 70년을 지나온 우리 할아버지의 일기장이라면, <암살>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우리 민족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 가장 아름답고 빛난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국제시장>의 덕수도, <암살>의 3인방도 실존인물이 아니다. 역사의 어디 한 귀퉁이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시대 수많은 덕수와 '3인방'이 있었음을 믿는다.

겉핥하면 등장하는 이런 애국심이 유치하고 뻔한 독재시대의 발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애국심이야말로 자신의 삶과 역사, 민족과 조국에 대한 자긍심이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영화 <암살>은 스타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면서도 하나만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았다. 역사는 영웅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000만 명이 <국제시장>에서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한 덕수에게서 자기연민을 느꼈다면, 역시 같은 수의 우리 국민은 <암살>에서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밀정 엄석진과 매국노 이강국, 그리고 일본군 사령관을 응징하는 3인방과 하와이 피스톨에게서 대리만족을 느꼈을 것이다. 그 통쾌함과 안타까움의 감정이야말로 애국심의 표현이다.

비록 지금은 아니더라도 무엇이 정의고 진리임을 아는 자는 어느 순간 그것을 선택하거나, 그 곳으로 돌아온다. <암살>의 3인방과 하와이 피스톨처럼. 베드로처럼. 

<광고>

바티칸까지 전해진 '챌린지 프란치스코 손수건 - 베로니카처럼'



교황청 선교지 통신 피데스(Fides), 바티칸 라디오(Radio Vaticana) 2015년 9월 1일 자 보도

끊이지 않는 관심 속에 이어지고 있는 '챌린지 프란치스코 손수건' 운동이 교황청 선교지 통신 피데스(Fides), 바티칸 라디오(Radio Vaticana)에 소개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피땀으로 얼룩진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 드린 베로니카처럼, 이제는 우리가 환경 오염으로 아파하는 지구의 눈물을 닦아줄 때입니다. 이 캠페인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계속 힘을 보태주세요.

“우리는 베로니카처럼 지구의 눈물을 닦아 줍니다.”

Mission “Go On!” 프란치스코 손수건

'챌린지 프란치스코 손수건'운동은 손수건 사용 인증 사진을 페이스북(facebook.com/missiongoon)에 공유하고, 캠페인에 참여할 사람을 지목하여 이 운동에 동참하도록 이끄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프란치스코 손수건'을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미 가지고 계신 손수건을 활용해서도 좋습니다.

'프란치스코 손수건'은 선교의빛 1886 매장, 가톨릭출판사 인터넷 서점, 본당 성물방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단체 구매 시 20% 할인)
•전화: 02-6365-1838 •팩스: 02-6365-1848

가톨릭출판사 www.catholicbook.kr



가격: 5,000원(1장)



성화에 얹힌 이야기

로레토Loreto에서 성 크리스토포로를 만나다

고종희 마리아 한양여자대학교 실용미술과 교수

1년 넘게 준비해온 〈한·이 현대조각전〉을 7월 중순 밀라노에서 개최한 후 2주 정도 성지순례를 하기로 계획했다. 나와 조각가인 남편 한진섭 요셉은 예약해 놓은 렌터카를 받기 위해 공항의 데스크를 찾아갔다. 그런데 한국면허증이 있어야지 국제면허증만 가지고는 차를 빌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20킬로그램짜리 여행 가방을 4개나 들고 있는데 말이다.

하늘이 노래졌다. 화도 치밀어 올랐다. 모든 것이 어긋난 것이다.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들을 순례하려면 차는 필수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 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짐이 많아도 너무 많았으니 이것들을 끌고서 기차여행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보였다.

크리스토포로는
여행의
수호성인으로
사람들을
어깨에 메고
강을 건네주는
일을 하던
엄청나게 큰
거인이었다.

‘늘 그러하셨듯이 주님께서는 이번에도 우리의 육신이 편한 것을 원치 않으시는구나.’

주님은 늘 육신의 고달픔에 비례하여 은혜를 주시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며 순명하기로 마음먹으니 겨우 진정이 되었다. 전시 때문에 일이 너무 많아서 목적지를 정하는 건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그저 이탈리아 동부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간다는 계획만 세웠으므로 우리는 그저 주님께 몸을 맡기기로 했다. 결과는 놀라워서 나의 저서 『명화로 읽는 성인전』에는 소개를 했으나 직접 보지 못한 작품들과 성지를 여러 곳 순례할 수 있었다. 이로써 나는 내 책에서 언급한 성지를 거의 다 순례하는 특을 받게 되었다. 그중 오상의 비오 성인이 사셨던 산조반니 로톤도S. Giovanni Rotondo와 성녀 잼마가 사셨던 루카Lucca를 방문했을 때는 너무도 감격스러웠다. 내 책의 시작과 끝을 장식한 성인들이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로레토Loreto라는 도시를 알게 된 것도 큰 은총이었다. 로레토는 예수님과 성모님과 성 요셉이 사셨던 나자렛의 집을 천사들이 이곳으로 옮겨놓



로렌초 로토, 〈성 크리스토포로, 성 로코, 성 세바스티아노〉
1535년경, 275 x 233cm, 로레토, 산타카사 박물관

어느 날 한 아기를 어깨에 메고 가는데 너무나 무거워서
너를 메니 온 세상을 짊어진 것 같다고 했더니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았다고 한다. 로레토 역에 도착한 것은 저녁 7시경이었다. 작은 마을이고 시간도 늦어서 택시가 없었다. 우리는 바퀴 달린 가방을 끌고 가기로 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 이르자 계단이 시작되었다. 성지는 저 높은 산꼭대기에 있었던 것이다. 남편은 두 팔에 짐을 들고 땀을 비오듯 쏟았다. 올 여름은 이탈리아도 연일 40도가 넘었다. 올라가는 길에 십자가의 길이 있었는데 기도가 절로 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정상에 다다랐다.

로레토 대성당은 예수님의 어릴 적 집 위에 지은 웅장한 르네상스 식 건축물이었다. 우리가 도착한 날에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순례객들이 각 지방의 깃발을 들고 도시를 한 바퀴 도는 행렬이 있었다. 휠체어를 탄 많은 환자들도 속속 모여들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순례자들은 촛불을 들고 행렬을 했는데 우리도 그들 속에 끼었다. ‘다들 촛불이 있는데 나만 촛불이 없구나’ 하고 생각하던 찰나에 한 수녀님이 촛불을 주고는 껌싸게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내 마음을 읽으신 주님께서 보내 주신 천사로 생각되었다. 그날 우리는 허름한 여관에 들어갔는데 여관집 주인은 우리에게는 특별히 에어컨이 있는 방을 주겠다고 했다. 여행 중에 만난 또 한 분의 천사였다. 그날 밤 에어컨이 없었다면 아마도 밤잠을 자지 못했을 것이다.

이번 여행을 통해 깨달은 것은 하느님은 우리에게 늘 수호천사를 보낸다는 것이다. 천사는 날개가 달린 그림 속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는 그 누군가인데 그를 알아보려면 촉각을 예민하게 작동시키고, 마음의 눈을 열어야 한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내 앞의 천사를 그냥 지나쳤던가.

로레토에서의 마지막 천사는 다음날 아침 박물관에서 만났다. 박물관을 나오는데 내가 좋아하는 로렌초 로토라는 화가의 도록이 눈에 띄었다. 이 화가의 대표작 〈성 크리스토포로〉가 있는지 혹시나 하여 물어봤더니 그녀는 나에게 그림이 있는 곳 가까이까지 데려다 주면서 로토가 말년에 이 도시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해 주었다. 이로써 나는 내 책에서 소개한 또 한 점의 그림을 우연히 만나는 행운을 누렸다.

이 그림은 로토의 대표작이자 성 크리스토포로를 그린 그림 중 으뜸으로 꼽히는 걸작이다. 성 크리스토포로는 여행의 수호성인으로 사람들을 어깨에 메고 강을 건네주는 일을 하던 엄청나게 큰 거인이었다. 어느 날 한 아기를 어깨에 메고 가는데 너무나 무거워서 “너를 메니 온 세상을 짊어진 것 같구나.”라고 말했더니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후 그는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었고, 배교를 강요당했으나 응하지 않고 순교했다. 이 그림을 실제로 보니 2미터가 훌쩍 넘는 대작인 데다 르네상스 회화 특유의 인체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가 하면 휘날리는 붉은 망토까지 있어서 그림에 생동감이 넘쳤다. 



로마서 특강

우리 조상 아브라함 (로마 4,1-25)

임숙희 레지나 엔아르케 성경삶연구소 대표

지난 호에서 로마서의 핵심 본문인 3,21-28을 함께 읽으면서 인간은 믿음을 통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의 의미를 성찰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함께 읽지요. 먼저 본문 전체를 낭독해보지요. 4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화되었습니다(4,1-8 참조). 그것은 할례(4,9-12)나 율법(4,13-17)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위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모델이 됩니다.

하늘의 별 에리카 이야기

저는 그림책을 좋아합니다. 일을 바꾸는 것이 휴식이라면 그림책 읽기는 저의 휴식이지요. 2주 전에 저의 그림책 멘토 선생님이 ‘에리카의 이야기 *Erica's Story*’라는 그림책을 건네주었는데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 책은 에리카라는 유대 여인의 실화입니다. 이탈리아 그림책 작가 로베르트 이노첸스는 독일 로텐베르크 광장에서 가슴에 유대인을 상징하는 다윗의 황금별을 매단 에리카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이 책은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1933~1945년에 6백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이 나치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에리카는 1944년 어느 때 쯤 탄생했지요. 수용소로 끌려가던 에리카의 젊은 부모는 달리는 기차 안에서 아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 폴밭을 향해 아기를 던집니다. 아



기는 친절한 아줌마의 돌봄으로 살아남고, 교육받고, 성장하여 가정을 꾸립니다.

이 그림책의 핵심은 세 아이의 엄마이자 손자 손녀의 할머니 에리카의 마지막 말에 담겨 있습니다. “한때 우리 민족이 하늘 위에 별들처럼 많아질 거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1933년과 1945년 사이, 그 별들 중에서 6백만 개의 별들이 졌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별은 잔인하게 생명을 빼앗기고 가족이라는 나무가 꺾어져 버린 우리 민족의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족은 다시 뿌리를 내렸습니다. 나의 별은 아직도 빛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별처럼 많아지리라고 한 약속을 에리카도 굳게 믿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 혼인할 때는 하늘의 별(아브라함의 별이겠지요!)이 내려다보이는 정원에 천막(후파)을 치고 식을 치룹니다.



바오로는 왜 아브라함을 소개하는가?

로마서로 다시 돌아갈까요? 바오로는 로마 3,21-31에서 인간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은총에 의해 의로워진다고 말한 후에 갑자기 구약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오로가 보기에 아브라함은 3,21-31에서 말한 자신이 말한 내용을 지지해주는 성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바오로는 4장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전할 때 의도적으로 창세기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창세기 12-25장을 지금 천천히 통독해보श्य.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하란에 사는 유목민이었는데 높은 나이에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납니다. 세겔, 베텔, 헤브론, 그랄, 브엘세바를 거쳐 이집트까지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지요. 그동안 온갖 역경을 물리치고 재산도 늘어나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영화를 물려줄 “자식 없이 살아가는 몸”(창세 15,2)인 자신의 신세를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시어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언약하십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 보아라... 네 후손들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창세 15,5) 이어서 “아브람이 주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주셨다.”(창세 15,6)고 성서는 전합니다.

바오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바오로는 4장 전체에 걸쳐서 창세 15,6을 토대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대해 세심하게 작업합니다. 여기서 바오로가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목적은 3,21-31의 내용, 곧 인간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자신의 주장을 아브라함 이야기로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오로와 동시대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이상적인 인물로 여겼지만 그 기준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의 행위, 곧 그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창세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사악을 제물로 바치

라는 명령에 아무 말 없이 순종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겪은 이 시련에 비추어서 창세 15,6을 시련을 통해 인정받은 충실함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바오로는 창세 15,6을 당대 유대인들과 다르게 해석합니다. 바오로가 보기에 그런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반적인 사례가 될 수 없습니다. 바오로는 의화가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성경에서 근거를 찾습니다. 창세 15,6은 성경에서 신앙과 의화의 관계를 처음으로 설정하는 구절입니다. 바오로는 아브라함의 신앙에 관한 의로움 이야기(창세 15,6)는 아브라함이 시련을 겪게 되는 이야기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시련을 겪기 전에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으며, 그것으로 하느님 보시기에 의로움의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것이지요. 바오로는 시편 32편을 인용함으로써 아브라함 이야기에 대해 자신의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본질은?

바오로는 할례(4,9-12)나 율법(4,13-17 참조)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주제를 마치면서 마침내 4,18-25에서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말씀을 믿었던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바오로는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지에서도 하느님을 믿었다는 것, 그리고 하느님을 찬미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요. “그는 불신으로 하느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더욱 굳세어져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로마 4,20).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은 그가 하느님 약속을 불신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어 문장을 보면 4,20에서 ‘하느님의 약속’이라는 말이 제일 첫머리에 나옵니다. 이 문장 구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정확한 것, 바로 하느님의 약속에 바탕을 둔 믿음임



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오로가 소개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정확한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믿는 하느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알고 굳세게 믿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느님은 생명을 원하시는 분이시며 믿음을 통해 인간을 살리시는 분, 믿음을 통해 꽃처럼 그의 인생이 활짝 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분, 곧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시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로마 4,17). 하느님은 어떤 분이인지 알고 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 굳세어지고 성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느님의 약속과 겉으로 보이는 것 사이의 갈등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방해를 극복한 데서 비롯됩니다.

아브라함은 굳세어지는 믿음으로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이 말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느님께 영광을 바친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처럼 오로지 하느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로마 4,20에서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영광을 바친다는 것은 이런 일반적인 의미보다 더욱 구체적인 것, 곧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 깊게 표현하고 불신앙과 반대되는 기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이 약속을 끝까지 완성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이 굳세어져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이

입니다(창세 15,6). 바오로가 아브라함을 의화의 모델로 소개하는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의 별, 우리 이야기

우리는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에게서 참된 믿음을 배웁니다. 믿음은 내가 먼저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하느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일상의 표징들에 진실하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세는 바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기에 유대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든지 하느님을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로마 4,2)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동등하다면 바로 비슷한 종류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음이 지배하는 곳에서도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느님이라는 사실에 바탕을 둥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이들 사이에서 일으켜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매우 가깝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허공을 치는 권투선수처럼 목표를 잃고 달릴 위험이 있다는 것, 믿음 없이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순수한 믿음 자체가 하느님께 보다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바오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게 내어 맡기는 것이 참된 의화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런 삶의 표본을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에리카는 6백만 명의 동족 학살이라는 참극을 당했으면서 “나의 별은 아직도 빛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별도 하늘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으로 실천하며 응답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믿음의 자손을 낳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시여, 우리도 그런 신앙의 은총을 얻을 수 있게 기도해주소서.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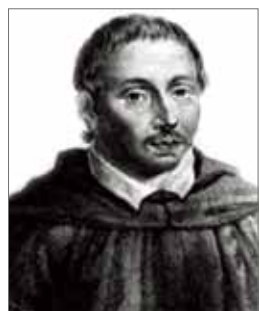
아가다의 음악편지

‘그레고리오 성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재능과 노력의 집합체

양인용 아가다 KBS 1FM <새아침의 클래식> 작가



그레고리오 1세 교황.



줄리오 카치니.

요즘은 음악 산업에서의 이익 창출과 관련해 저작권 권리에 관한 문제가 자주 논란거리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음악가들 스스로 자신이 만든 작품들을 관리하는 데 애민한데요. 하지만, 옛날 작곡가들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음악의 목록을 만들고 정리하는데 그리 성실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다보니 출처가 불분명한 음악들도 나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전혀 다른 작곡가의 작품으로 세상에 잘못 알려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는데요. 그러다 나중에 원 작곡자가 누구인가가 후대인들에 의해 밝혀지는 곡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성모님과 관련하여 자주 연주되는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아베 마리아’라는 매우 단순한 가사만이 반복되지만, 심금을 울리는 애절한 멜로디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이 노래는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라고 널리 알려진 바와는 달리, 17세기 초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활약했던 줄리오 카치니(Giulio Caccini, 1551~1618)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곡으로 밝혀졌습니다. 진짜 작곡자는 20세기의 러시아 음악가 블라디미르 바빌로프(Vladimir Vavilov, 1925~1973)인 것으로 드러났죠.

바빌로프는 1960~1970년대 소련의 국영 악보 출판사에서 일하던 음악가로, 옛날 음악들을 발굴해 세상에 알리는 것이 그가 맡은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던 중 1970년, 바빌로프는 작곡가 미상의 옛날 음악들을 수록한 앨범 한 장을 국영 멜로디아 레이블을 통해 발표하게 되는데요. 문제의 곡 ‘아베 마리아’ 역시 작곡자 미상의 곡으로 이 앨범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빌로프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함께 음반 작업을 했던 동료 음악가의 주장에 의해 ‘카치니’의 곡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죠.

하지만 이 곡의 스타일이 카치니가 살았던 르네상스 말 바로크 초의 음악 스타일과는 참 많이 달랐기 때문에,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다 바빌로프가 평소에도 다른 작곡가의 이름을 빌려 곡을 발표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바빌로프의 딸은 그 이유에 대해 당시 소련의 정치적 상황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당이 문화 및 예술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국영 레이블을 통해서만 음반을 발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바빌로프가 자신의 곡을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길은 자신의 이름을 숨기는 것이었다고 말이죠.

수 백 년 전 르네상스 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폴리포니 다성 음악의 대가인 조스캥 데 프레(1450경~1521)가 그 예입니다. 조스캥 데 프레는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음악의 아버지’, ‘우리 시대 최고의 작곡가’라는 극찬을 한 몸에 받았던 작곡가인데요. 조스캥의 인기는 그가 죽은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조스캥은 화가 미켈란젤로에 필적하는 예술가로 평가됐고, 그의 음악은 계속해서 필사되고, 출판되고 또 연주되었죠. 이 과정에서 조스캥의 작품을 훔쳐 내거나 그것을 소재로 해 재작업하는 하는 음악가들도 있었고요. 돈벌이에 골몰한 출판업자와 필사자들은 종종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을 조스캥의 곡으로 속여서 세상에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런 당시의 세태를 빗대어 게오르크 포르스터(Georg Forster, 1510경~1568) 라는 이름의 독일 사람은 “조스캥은 살았을 때보다 세상을 떠난 후에 더 많은 작품을 작곡했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조스캥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320여 곡 가운데, 진품으로 밝혀진 것은 180여 곡 정도입니다. 나머지 음악들의 경우는 진위 여부를 가리는 작업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닷 왕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애도하는, 구약 성경 사무엘서의 내용에 기초해 만들어진 유명한 모테트 <압살롬, 나의 아들>도 조스캥의 곡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조스캥이 썼던 것보다 낮은 음역대의 곡이고, 작곡 스타일도 다르고, 조스캥 사후 20년이나 지나서 나타난 작품이라는 점도 <압살롬, 나의 아들>이 위작 의혹을 받는 이유들인데요.

그러나 작곡가가 누구이냐에 따라 그 음악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한때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로 알려졌던 곡은 이제는 바빌로프가 쓴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로 방송과 연주회에서 소개되고 있고요. <압살롬, 나의 아들>도 슬픔에 빠진 아버지의 통곡을 생생하게 그려낸 탁월한 곡으로 여전히 사랑받고 있죠. 교황 그레고리오 1세의 이름을 빌린 수천 곡의 ‘그레고리오 성가’ 역시,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재능과 노력의 집합체로서, 천 년이 지금까지도 가톨릭교회의 첫 번째 음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채워주는 이런 놀라운 음악들과 더욱 가까이 하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조스캥 데 프레.



블라디미르 바빌로프.



평신도 양서

정리
신동수 편집위원



김민수 지음
정미연 그림, 서교출판사
145×210, 252쪽
13,000원

행복한 사람들

문화사목 선구자 김민수 신부의 첫 산문집으로 총 3장으로 구성돼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며 곧 '행복한 사람'임을 재차 강조한다.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이 추구하는 '거짓 행복'과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행복'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을 겪고 있다. 이 책은 기도로 마음을 가난하게 비우고, 사랑으로 이웃을 품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보이테크 코멧 지음
성연숙 옮김, 도서출판 벽난로
125×188, 128쪽
7,000원

성체, 그 특별한 선물

가톨릭교회의 핵심인 성체성사의 신비를 딱딱하게 설명하기 보다는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40개의 짧은 묵상글을 통해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특별한 선물임을 깨닫도록 돕는다. 저자는 체코 공화국 수사 신부로 저명한 영성 저술가이다. 현재 체코 가르멜회 관구장을 지내고 있다.



찰스 커밍스 지음
맹영선 옮김, 성바오로
148×210, 240쪽
12,000원

생태영성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날 지구는 인간의 기술만능주의와 인간중심주의가 초래한 환경과 생태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태학적 회심'이 요구되며 국가, 사회, 개인의 다양한 차원의 대화와 생태 교육을 촉구하였다. 교황의 지적에 맞춰 이번에 출간되는 「생태영성」은 이러한 교황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생태문제'에 대한 전체적이면서도 균형적인 통찰을 보여주는 입문서이다.



손희송 지음
가톨릭출판사
126×188, 223쪽
9,000원

일곱성사

가톨릭 신앙의 보물인 일곱성사(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성품, 혼인성사)의 우래와 의미,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며 탄생에서 죽음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서 성사론을 강의했던 손희송 주교는 신자들이 성사를 이해하고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하며 신자 재교육용으로도 좋은 교재라고 추천한다.



안셀름 그뤼어 지음
이종한 옮김, 분도출판사
128×185, 192쪽
10,000원

주님의 기도(원제: Vaterunser)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인 주님의 기도가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의 기도를 매일 바치지만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자주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외우기 일쑤다.

안셀름 그뤼어는 주님의 기도의 세 가지 의미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첫째, 주님의 기도는 우리를 예수님의 '아버지 체험'으로 이끌어 간다. 둘째, 복음의 근본 주제를 함축하고 있다. 셋째, 산상 설교가 주님의 기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 지음, 진솔기 옮겨 엮음
임익준 그림, 가톨릭출판사
140×205, 316쪽
12,000원

그대를 나는 이해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한 지도 벌써 1년이 되어 간다. 작년 이맘 때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습과 말씀, 행동을 접하며 크나큰 감동과 위로를 받았다. 특히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다고 한 교황의 말은 이웃과 타인을 위한 삶에 동참해야겠다는 다짐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다짐은 잊은 지 오래고 매일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힘겹기만 하다. 교황의 위로가 필요한 이때, 교황을 다시 만나고 싶은 이때, 가톨릭출판사에서 《그대를 나는 이해합니다》를 출간했다.



클래런스 J. 엔즐러 지음
박정애 옮김, 바오로딸
148×210, 336쪽
13,000원

나를 닮은 너에게

그리스도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를 당신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한 삶을 충실하게 살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거울, 그분의 또 다른 자아가 되어 그분과 일치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신자 재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세 시대에 토마스 아 켐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 준주성범」을 썼다면, 이 책은 21세기에 새로 쓴 준주성범이라 할 수 있다.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그리스도 주님의 지극한 사랑이 담겨 있는 사랑 고백서!



존 헨리 뉴먼 외 다수 지음
안세환 옮김, 생활성서사
126×188, 160쪽
7,500원

성령 하느님,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우리가 매일같이 십자성호를 그으며 부르는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 그리고 성령 하느님. 하지만 구약부터 신약까지 끝없는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과 달리 성령 하느님은 성경에서조차 아주 조금만 등장하시기에 신자들에게 성령 하느님은 막연하게만 느껴진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신자들을 위해 쓰인 책이다. 존 헨리 뉴먼을 비롯한 스물여덟 명의 권위 있는 사제, 신학자, 그리고 영웅적인 신앙의 증거자들이 끊임없이 갈구하고 찾던 성령 하느님의 모습들을 담고 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한국평협 담당 손희송 베네딕도 주교 서품, 조성풍 신부 부임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와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담당사제인 손희송 베네딕도 신부가 지난 7월 14일 서울대교구 보좌주교로 임명되어 8월 28일 명동대성당에서 서품됐다.

시종 엄숙한 표정으로 서품식에 임한 손 주교는 축하식에서 박은영 부회장과 조기연 수석부회장으로부터 각각 꽃다발과 영적 예물을 받고 활짝 웃어 보이며 기쁨을 표현하기도 했다.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와 정진석 추기경, 주교회의의 장인 김희중 대주교는 축하를 통해 한국교회의 발전에 감사하고 손 주교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대독한 축하사에서 손 주교의 서품이 한국천주교와 우리 사회 모두의 큰 축복이며 광

복과 분단 70년을 맞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교구장인 염 추기경과 함께 힘을 보태어 달라고 요청했다. 사제단 대표로 축사를 한 이영제 신부는 손 주교 특유의 목소리를 성대모사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권길중 회장은 손 주교의 어릴적 일화를 들려주고 손 주교가 우리를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와 같이 사랑해 주셨다며, “손 주교님 안에서 언제나 마리아를 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축사와 함께 순명과 향구한 기도를 약속했다.

손 주교는 답사에서 “감사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라는 세 문장으로 심정을 표현하겠다고며 “좋은 신 하느님께 감사하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로 끝맺었다.

손 주교는 지난 2012년 서울대교구 사목국장에게 임명되면서 평협 담

당사제로 인연을 맺었다. 이 자리에는 각 교구 평협 회장들과 서울평협의 임원, 단체장들이 참석해 손 주교의 서품을 함께 축하했다.

손 주교의 사목표어에는 인간을 위해 아낌없이 당신 자신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에 대해 온갖 불신과 의심을 떨쳐버리고 토마스 사도처럼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하고 고백하며 ‘땅에 떨어져 결실을 맺는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신앙의지를 담아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요한 20,28)’으로 정했다.

한편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신부가 9월 1일자로 서울대교구 사목국장에게 부임하여 한국평협과 서울평협을 담당하게 됐다.

● 한국평협 전반기 연수



한국평협은 지난 7월 10~11일 이틀간 광주대교구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에서 교구평협 임원, 회원단체장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반기 연수를 개최하고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과 평화네트워크워크숍을 진행했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신임 사목국장 조성풍 신부, 담당사제로 부임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권길중 · 이하 서울평협) 담당 사제로 신임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신부가 부임했다. 조 신부는 1993년 서품 후, 미국 가톨릭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가톨릭대 성심교정과 교구 사목국 일반교육부를 맡아왔다.

●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단체 박람회」 개최를 위한 준비에 박차

서울평협이 오는 11월 제48회 평신도주일을 기념하며 기획하고 있는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단체 박람회」를 위한 TFT가 활발히 가동되고 있다.

서울평협 회원단체가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세상의 복음화의 사명을 실천하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들이 서로의 활동을 이해하고, 협력함으로써 더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사도직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며, 나아가 아직 사도직

단체의 활동들을 잘 모르는 신자와 예비신자들에게 다양한 사도직 단체의 활동을 알리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참가 신청을 한 신심단체와 직능단체들은 명동 가톨릭회관 마당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단체를 알리고 회원을 모집하며 미사, 공연 등을 계획하고 있다.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평촌성당 빈첸시오회 남수단에 문구 및 의류 전달



평촌성당 빈첸시오회(회장 김대식)는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남수단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할 문구 및 의류

750여 박스를 교구 복음화국 해외선교부에 전달했다.

평촌성당 빈첸시오회는 “가톨릭 신문에 게재되는 해외선교 사제의 소식을 접하고 이와 같은 후원을 계획하게 됐다.”면서 “회원들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올해 2월에는 문구류를 모았고, 4~5월에는 의류를 모으는 활동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본당 주보에 후원 공지를 하는 것은 물론, 주임 김찬수 신부가 미사 중에 공지를 하여 신자들에게 공감을 얻었으며, 많은 참여로 이어지는 결실을 맺었다고 덧붙였다.

평촌성당 빈첸시오회는 지난 10년간 문구류를 모아 동남아시아, 필리핀, 국내 수녀원 등에 보내고 있으며, 김장 김치 나누기, 무료급식 활동, 정기 노력봉사 등의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 수원교구 성우회 30주년 감사미사



수원교구 성우회(회장 이순자) 발족 30주년 감사미사가 6월 23일 울전동성당에서 전임 교구장 최덕기 바오로 주교 주례로 봉헌됐다.

이날 미사에는 원로 사목자들과 교구 사제, 성우회 회원들이 참석

해 지난 30년 동안 원로 사목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한 성우회를 격려하고 자축했다.

최덕기 주교는 미사 강론을 통해 “한 개인이 불철주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에, 드러나지 않은 단체에서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봉사한 성우회는 분명 주님과 함께함을 증명하는 단체”라고 말했다. 그리고, 최주교는 “긴 세월 성우회를 이끌어 온 이순자 회장의 리더십에 남다른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셨을 것”이라면서 감사의 말을 전했다.

1985년 6월 10일 발족 당시 성우회는 ‘수원가톨릭대학교 장학회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봉사 단체였으나, 이후에는 은퇴 사제들을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는 일도 겸하게 됐다.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교구 100주년기념 범어대성당 공사현장 방문



대구대교구 평신도위원회 및 평단협 회장단은 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와 함께 6월 2일(화)

오후 5시 교구 100주년기념 범어대성당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는 만찬을 함께한 평신도위원회와 평단협 회장단에게 기념대성당 건립을 위한 그간의 협조에 감사하고 지속적인 성원과 동참을 당부했다.

교구 100주년 기념 범어대성당은 2016년 예수부활대축일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 2015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전시회



대구대교구 평단협 산하 대구가톨릭미술가협회는 2015년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전시회를 주관하여 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 교구 평단협 회장단 등 내빈을 초청한 가운데 8월 4일(화) 오후 6시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개막식을 가졌다.

조환길 대주교는 축사를 통해 “12개 교구의 가톨릭미술가협회 회원들이 ‘미술’을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신앙이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8월 4일(화)부터 9일(일)까지 열린 이번 전시회는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를 주제로 12개 교구의 가톨릭미술가협회 회원들의 작품을 전시했다.

● 평신도위원회 · 평단협 상임위원 성지순례



대구대교구 평신도위원회와 평단협 상임위원들은 8월 29일(토) 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와 함께 부산 오륜대 순교성지와 울산 병영순교자성당(장대별)을 순례했다.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이정식 요한, 양재현 마르티노의 시성과 김범우 토마스 시복을 위한 도보성지순례 시작



2015년 2월 28일 이정식 요한과 양재현 마르티노의 시성과 김범우 토마스 시복을 위한 도보성지순례가 새로 시작한 데 이어 3월 28일, 4월 25일, 6월 27일, 7월 25일, 8월 29일까지 6차에 걸쳐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진행된다. 오전 9시 삼랑진역에서 출발하여 김범우 묘소까지 약 7km를 묵주기도 및 십자가의 길 기도를 봉헌하면서 순

례하고, 11시 삼랑진 성모동굴성당에서 이정식 요한과 양재현 마르티노의 시성과 김범우 토마스의 시복을 위한 기원 미사를 드린다. 이른 아침 부산서 삼랑진역까지 기차를 타고 삼랑진역에서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교구의 도보성지순례가 시복, 시성을 앞당기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 믿는다.

● 부산평협 공소순례 및 1일 피정, 성모님의 날 봉헌



부산평협 상임위원회는 2015년 5월 9일 연양성당 일원 도보 공소순례를 실시했다. 연양성당에 집결하여 5월 상임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출발 전 기도 및 손삼석 요셉 주교님의 강복으로 시작하여 길천~순정~궁근정~살티 공소를 순례하였으며 인보성당에서 성모님의 날을 겸한 파견미사로 1일 피정을 마쳤다. 성모님의 날을 겸한 특전 미사 강론 중에 손 주교는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께서 늘 함께하심을 믿는 것이 곧 신앙고백이다.”며 세상의 삶 안에서 늘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살아가자고 했다. 이날 순례에 부산교구 평협 상임 임원 30여 명과 총대리 손삼석 주교, 장재봉 선교사 목국장, 김정렬 관리국장 신부가

함께했다. 특히 이 지역 복음의 씨앗을 처음 뿌린 102년 역사의 순정공소 출신 김정렬 신부의 자세한 안내로 보다 알차고 깊이 있는 신앙체험을 할 수 있었다.

● 시복 1주년 감사 도보성지순례



2015년 5월 30일(토) 시복 1주년 감사 도보성지순례를 함께했다. 13시 30분 교구장 황철수 바오로 주교와 사제단, 교구민 250여 명과 함께 광안성당(수영장대순교성지)에서 출발하여 오륜대순교자성지까지 온천천을 따라 14km를 묵주기도를 바치며 걸었다. 17시에 오륜대 순교자성지에 도착하여 교구장 주교의 주례로 시복 1주년 감사 미사를 드렸다.

아침부터 비가 산발적으로 오는 데도 불구하고 사제와 교구민 250여 명은 7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으면서 이정식 요한과 양재현 마르티노의 시복을 위해 기도하던 모습 그대로였다. 또한 미사 후, 지난해 시복된 이정식 요한과 양재현 마르티노 등 124위 복자들의 시성과 김범우 토마스 순교자의 시복을 위한 기도를 바쳤다.

● 제5회 부산가톨릭문학 캠프

부산가톨릭문인협회는 2015년

8월 22일(토) 남천동 푸른나무 교육관에서 문인 및 문학지망생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5회 부산가톨릭문학 캠프’를 열었다. ‘부산교구 선정 신앙서적 독후감 글쓰기’를 위한 독후감 강좌’를 주제로 한 캠프는 성바오로딸수녀회 강 마리아 수녀, 소설가 이규정 스테파노씨의 강의, 회원 작품 낭송, 파견미사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부산가톨릭문인협회(회장 하창식 · 담당사제 이성주)는 최근 『가톨릭문학』을 계간지로 발간하여 시, 소설, 희곡, 평론, 수필, 동화 등 다양한 장르의 문학 지망생들이 『가톨릭문학』을 통해 등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교구 여성협의회 제7차 여성대회

교구 여성협의회(회장 이갑순) 제7차 여성대회가 7월 7일 신안동성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교구 내 여성협의회 회원 450명이 참석하였으며, 이광호 교수로부터 ‘미디어시대에 필요한 생명과 책임의 성교육’이란 주제의 강의를 들

었다. 여성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자녀들의 성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리고 교구장 안명옥 주교의 주례로 파견 미사가 봉헌되었으며, 제7차 여성대회는 파견 미사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2015년 한국평협 전반기 연수회 광주개최



광주평협(회장 나현식 · 담당사제 우원주)은 7월 10~11일 예수고난회 광주 명상의 집에서 각 교구 평협 회장단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한국평협 전반기 연수회를 개최했다.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님의 집전으로 개막미사를 봉헌하고, 첫 번째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워크숍에서는 광주대교구의 추진사례 발표에 이어 교구별 추진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 두 번째 『평화 네트워크』 워크숍에서는 “평화 네트워크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변진홍 교수의 강의

와 그룹토의 후 발표가 이어졌다. 파견미사 강론에서 옥현진 시몬 주교님께서는 “한국평협이 펼치고 있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이 성공적으로 전개되어 우리 모두가 신자답게 살아감으로써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 평협 · 여성위원회 임원연수회

광주평협과 여성위원회는 7월 17~18일 임원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성 회천공소에서 임원연수회를 가졌다. 평협과 여성위원회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연수회에서는 임원 간 친목을 다지며, 올해 전반기 사업들을 돌아본 후 하반기에 예정된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여성위원회 야외행사



여성위원회(위원장 홍순덕, 담당사제 우원주)는 6월 2일(화) 각 본당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대아수목원으로 야외행사를 다녀왔다. 시작미사 강론에서 우원주 신부는 “여러분의 헌신적인 수고 덕분에 소속된 본당은 발전하고 있다.”고 격려한 후 “앞으로도 각 본당과 교구 발전을 위

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연 속에서 쉼을 가지면서 레크리에이션과 장기자랑의 시간을 갖고 친목의 시간을 보냈다.

● 예비신자 교리교사회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다짐

예비신자 교리교사회(회장 이동운 · 담당사제 우원주)는 8월 22일 광주가톨릭교육원에서 개최된 ‘대표교리교사연수회’에서 평협이 펼치고 있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주제로 특강을 듣고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날 특강을 맡은 평협 나현식 안드레아 회장은 “예비신자 교리교사는 그리스도교 신앙인이면서 교리교육을 맡은 교리교사 임무를 지닌 평신도”라고 전체하면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하여금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믿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전심으로 귀의하게 준비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리교사들이 먼저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리아 사업회

● “천국 우리 사이에!”

지난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2박3일 또는 3박4일간 전국 각지에서 총 14개 여름 마리아폴리가 열렸다.

올해 마리아폴리는 규모와 형태, 장소와 일시가 다양한 것이 특



징이며, 거주지 구역공동체를 중심으로 50~100명이 함께한 소규모 마리아폴리가 제주와 부산, 충남 당진과 서천, 강원도 인제와 평창, 경북 포항과 경남 밀양, 경기도 의왕과 양평 등 11곳에서 열렸다. 예년과 같은 대규모 마리아폴리는 경주 코모도 조선호텔에서 영남 지역을 대상으로 420여 명, 천안 국립청소년수련원에서 2회에 걸쳐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700여 명, 충청, 전라 지역을 대상으로 700여 명이 각각 참가했다.

한 참가자는 “개인적으로 아직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루카 17,21)는 성경 말씀처럼, 하느님의 나라는 하늘의 특정 공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이번 마리아폴리에서 깨달았다.”고 밝혔다.

마리아폴리(Mariapoli)는 연령과 신분,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남녀노소가 모여 복음적 사랑과 일치를 생활화하며 함께 건설해보는 ‘마리아의 도시’를 뜻하는 포콜라레 운동의 전형적인 집

회이다.

이곳에서 배운 복음적인 삶의 방식은 일반 사회 통념에 따른 장벽이나 거리감도 점차 극복하게 해 주었다. 초창기 마리아폴리의 영상 기록물 중에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마리아폴리에 막 도착했을 때는 거드름을 피우다가 마리아폴리가 끝날 무렵,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봉사하는 모습으로 바뀐다는 내용의 익살스러운 연극 장면도 있다. 이렇듯 복음적인 혁신을 가져오는 마리아폴리는 해마다 세계 각지에서 열린다.

마리아폴리는 한국에서는 보통 여름휴가 기간에 열리며 1969년 한국에 포콜라레운동본부가 공식적으로 개원하기 1년 전인 1968년부터 올해까지 47년간 거의 매년 열려 왔다.

한국가톨릭 간호사협회

● 2015년 전국 가톨릭 간호대학생 연합 피정 개최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회장 홍

현자 수녀)는 2015년도 ‘전국 가톨릭 간호대학생 연합 피정’을 2015년 7월 3일(금)~4일(토) 1박2일로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관에서 진행했다.



메르스가 창궐하고 있었으나 전국에서 가톨릭 간호대학생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꿈을 먹는 젊은이’의 주제로 김동렬 안셀모 수사가 피정을 진행했다.

● 제6차 간호영성 세미나 개최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는 2015년 8월 8일(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제6차 간호영성 세미나를 개최했다.

홍현자 회장의 인사와 영상기도로 시작하여 ▲의료인의 영성(장광재 신부-서울성모병원 영성부원장)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정호승 시인) ▲실천적 삶 안에서 의료인의 영성(신상현 수사)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감명 깊게 들었다.

전국에서 모인 230여 명의 가톨릭 간호사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기에 충분했던 강의였다. 또한 의료인으로 살아간다는 뿌듯함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는 시간들에 감사하며 따뜻한 마음을 품고 내년을 기약했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 2015년 해외 봉사 25명,
몽골서 사랑 실천



21명의 청년과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회장 김태영·담당사제 최정묵) 2015년 몽골 해외 봉사단은 지난 7월 3일~8일 5박6일간 몽골 울란바토르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서울을 비롯하여 의정부, 원주, 청주, 마산의 각 교구 청년 빈첸시안들이 모여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몽골 현지 향을 성당에서 사목 중인 허웅 신부님과 함께 몽골의 빈민들을 찾아가 일정을 함께하며 빈첸시오 센터 시설 정비와 몽골 교회의 어려움 등을 공유

하며, 천사님들이 모아주신 소중한 기부금(1,000만원)도 전달한 후 앞으로 몽골 사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돌아왔다.

냄새나는 쓰레기 하치장에서 일하며 생활하는 빈민 가정을 방문하여 그들과 소중한 사랑을 나누며 선물도 드리고 살고 있는 집인 게르도 수리해주며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것이 소중함을 배웠다.

벽돌을 나르고 회관 건물을 수리하며 굶은 땀방울의 소중함을

텔에서 개최됐다. 또 주교회의 교육위원회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세미나가 5월 21일 '가정과 교육'이란 주제로 신성여자고등학교에서 개최됐다.

6월에 발생한 중동호흡증후군(메르스)의 여파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거의 모든 학교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각 학교들은 7~10일 정도 휴학을 했고, 6~7월에는 단체 활동이 거의 중단이 되거나 연기가 됐다. 이에 따라 6월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가톨릭 학교 학생대회는 11월로 연기됐다.

배우고 돌아왔다. 이번 봉사활동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곳이라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라도 찾아가 기쁨을 함께하는 빈첸시안의 정신을 실천하기로 굳게 약속했다.

한국가톨릭 학교장회

한국 가톨릭학교단체협의회 총회와 가톨릭학교 교장선생님 연수가 2015년 5월 20~22일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함덕 선샤인 호

Editor's Letter

에디터 레터

그리스도의 평화!

전국의 평신도 지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의 흐름 앞에 장사가 없다는 명제를 확인해주는 듯 그토록 무더웠던 데다 메르스까지 창궐해 인심마저 흥흥했던 여름이 지나고 이젠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니다. 아마도 가을은 양면성을 지나나 볼니다. 현재적으로는 결실의 계절이지만 영성적으로는 죽음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9월을 순교자성월로 정해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 목숨도 내놓은 순교자들을 현양합니다. 10월 목주기도성월 때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신비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스산한 바람을 타고 낙엽이 흩날리는 늦가을 11월 위령성월 때는 모든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 탄생을 기다립니다.



이번 '평신도' 가을 호는 한국평협이 펼치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더 숙고해보자는 취지에서 '참 그리스도의 삶'을 주제로 삼아 꾸몄습니다. 권길중 한국평협 회장님께서 '어머니답게 삽시다'라는 주제로 인사말씀을 하셨고, 서울대교구 총대리 조규만 주교님께서 신앙인의 자세와 성직자로서의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성령기도로 왕성하게 봉사활동을 하시는 서울대교구 김정숙 자매님, 가톨릭언론인 각종 모임에서 전례봉사를 하시는 인천교구 전종환 형제님, 마산 가톨릭문인회 김연희·박성임 자매님께서 각자의 처지에서 참 그리스도인은 어떠한지 솔직담백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언론계 한 선배로부터 전해들은 고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서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장면1. 1970년대 초 겨울 서울 동성고등학교 졸업식장. 졸업생 황군은 들뜬 마음에 개근상장도 아닌 정근상장을 받은 후 단상에서 손가락으로 V자를 그려 흔들며 쫓고 까불어 졸업생뿐만 아니라 축하객까지 웃기며 주목을 끄니다. 당시 동성학교 재단이사장으로서 격려차 오신 서울대교구장 김 추기경님께서 이를 목도하신 후 앞날이 크게 걱정되었는지 준비한 원고는 거들떠보지 않고 요즘 젊은이들의 진중하지 못한 태도를 주제로 크게 꾸중하는 연설을 하셨습니다. 졸업식 행사가 끝나고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교실에 모였을 때 담임선생님은 황군을 혼쭐냅니다. 황군은 뺨을 맞아 코피가 터지고...

#장면2. 황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5년도 훌쩍 지난 어느 해 스승의 날. 일흔 중반의 추기경님과 각기 나름대로 사회의 중추로 일하던 예전 까까머리 제자들이 만났지요. 모임 사회를 맡았던 황씨가 모임 초반 어색한 분위기를 전환해보고자 당시 벌어졌던 일들을 유머를 섞어 추기경님께 들려줍니다. 그러자 추기경님께서 별떡 일어나셔서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아이쿠!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참석자들 모두 추기경님의 겸손함과 진정성의 매력에 빠져 감동하였답니다. 德香萬年!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하신 지 만 7년이 다가오지만 잊히지는커녕 님의 향기가 모든 사람의 가슴에 여전히 그윽합니다. 특히나 큰 어른의 부재로 이리저리 헤매는 요즘 들어서는 더욱...

편집장 김선동 루카 올림

교구평협, 회원단체 소속 평신도 명예기자를 모집합니다.



한국평협에서는 계간 '평신도'와 함께 할 명예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평협과 회원단체별로 한 명의 명예기자를 선정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기자는 앞으로 '평신도' 발간과 관련 각 교구와 단체의 소식과 관련 사진자료 등을 정리해서 한국평협 사무국 ☎ 02)777-2013, FAX 778-7427, 전자우편 clak@catholic.or.kr 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명예기자는 아름다운 자원봉사활동입니다.

명예기자 명단(2015년 3월 현재)

소속	이름	세례명	이메일 주소
서울평협	신동수	세라피나	seraoo6@hanmail.net
대전평단협	이병인	미카엘	duck1995@hanmail.net
인천평협	김선우	다미아노	ksw7287@hanmail.net
원주평협	백정현	임마누엘	wonju@pbc.co.kr
대구평단협	이영구	실베스텔	mecouple@hanmail.net
부산평협	공복자	유스티나	kongbog@hanmail.net
청주평협	정영수	프란치스코	cjjys2000@korea.kr
광주평협	정춘자	로사	jlosa1208@hanmail.net
의정부 평단협	권미영	모니카	teletong@naver.com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	손세공	비오	eldison@naver.com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한경숙	마리안나	kshan628@nate.com
한국가톨릭병원협회	강영숙	마리아 막달레나	magdalena57@hanmail.net
한국가톨릭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두현자	율리안나	doonim53@hanmil.net
꾸르실로 한국협의회	황웅진	헨리코	pravda89@naver.com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투스	김혜원	율리아나	yuliana88@hanmail.net
M.B.W. 한국 공동체 추진 봉사회	송애련	젬마	ae4789@hanmail.net

공지 사항

평신도 원고모집

한국평협이 발행하는 계간 '평신도'는 교회 내 각종 정보와 각 교구평협과 회원 단체들의 소식으로 엮는 종합정보지입니다. '평신도'에서는 열린마당 코너의 생활 수필에 관심 있는 독자 여러분의 글을 모집합니다. 원고의 양은 200자 원고지 10매입니다. 원고가 채택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